

15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33.45	↑ 코스닥	773.81
	(+10.16)		(+3.55)
↓ 금리 (미국 9년)	2.906	↑ 환율 (원-달러)	1360.60
	(-0.032)		(+4.70)

배터리업계, 美 AMPC 의존도 심화... 자생력 약화 우려

〈첨단세액공제〉

전기차 캐즘에 배터리 화재까지 배터리사 3분기 실적부진 예상 속 LG엔솔 등 AMPC로 손실 만회 ESS·BaaS 등 경쟁력 강화 분주

억원을 수령했으며 이를 제외하면 영업손실은 177억원이다. 지난 2분기 AMPC를 제외한 적자 2525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손실 규모가 줄긴 했으나 여전히 AMPC에 대한 실적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터리업계가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첨단세액공제(AMPC)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AMPC는 침체된 시장 속에서 수익성 악화를 방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업계 전반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SDI는 북미에 생산 기지 없어 상대적으로 AMPC 수혜가 적다. 다만 팩 법인이 있어 올해 상반기부터 546억원의 AMPC 혜택을 보기 시작했다. 아울러 4분기 말 북미 스텔란티스 합작법인(JV)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AMPC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3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1천 69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5.8% 줄어든 것으로 예측된다.

AMPC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이다. 셀은 1kW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은 1kWh당 10달러씩의 혜택을 준다. 이에 힘입어 국내 배터리사들은 IRA 시행 이후 미국 현지 생산거점 구축에 나서고 있다.

SK온 또한 AMPC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1분기 385억원에서 2분기 111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미국 판매량 회복에 힘입어 지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분기에는 공장 가동률 하락, 헝가리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초기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영업손실 4601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사들이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과 잇따른 배터리 화재 여파로 3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IRA 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더욱이 IRA 시행에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8일 올해 3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이 각각 4483억원, 6조 877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 영업이익은 38.7%, 매출은 16.4% 감소한 수치다. 회사는 해당 기간동안 AMPC 혜택으로 4660



북한,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은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또 "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모습을 CCTV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북한이 경의선·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끝내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낮 12시경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모습을 CCTV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뉴시스

주택연금 가입자 3명 중 2명이 수도권 거주

주택연금 가입 '수도권 쏠림' 심각 비수도권 거주자 가입 유인 필요

명의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입 당시 주택 가격에 따른 금액을 매달 받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 가격 하락 시에는 지급 약정액을 보전해주는 반면, 상승 시에는 기지급액을 상환해 주택을 보전할 수 있어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정책금융상품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이 은퇴자의 노후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비수도권 거주자의 가입을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10만 1027명(가입 유지 기준) 중 67.6%(6만 8252명)은 수도권에 거주자였다.

1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주택연금의 누적 가입자는 총 13만 36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입자 수는 6만 1424명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세는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빨라지고 있다.

실제 서울·경기 지역의 월평균 지급액은 166만원에 달해, 지난해 국민연금 연구원이 제시한 노후 적정 생활비인 165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07년 나온 주택연금은 본인

반면 비수도권의 월평균 지급액은 103만원 수준이었다. 지급액이 가장 적

은 전남(68만원)과 가장 많은 서울(225만원) 간의 차이는 3배 이상 벌어졌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비수도권보다 높아 중도 해지에 대한 부담이 적어 수도권의 가입률이 더 높은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13.4%, 경기도가 8.1%, 인천이 4.9%를 기록했다.

주택연금 해지 시 돌려받지 못하는 초기보증료(주택 가격의 1.5%) 및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연 보증료(1%), 기지급된 연금액에 대한 이율 등을 고려해도 주택 가격 상승분이 더 커, 주택연금 해지 부담이 크지 않았다.

〈3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제주 관광사업화 적극 지원"

尹, 제주도 29번째 민생토론회 제주 신항·제2공항 신속 건설 자연·문화유산 보전·발전 약속



전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신항과 제주 제2공항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제주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제주신항이 건설되면 제주항의 물류 기능이 확충되고, 관광객이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를 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사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교통관광·에너지·정주여건 등 세 가지 측면의 제주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하늘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제주도민, 기업인, 연구자, 해녀, 지방시대위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이러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서 제주 관광의 품격과 수준을 높여겠다"며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이며, 이날 제주를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 순회 민생토론회를 모두 마쳤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비전에 대해 "제주도의 청정 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제주도가 무탄소 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주의 성장 잠재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며 "제주의 강점과 특성에 더욱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제주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제주도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 세 가지 비

이와 함께 대규모 그린수소(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 수소) 실증사업엔 2026년까지 56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폐배터리를 농기계나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제주에서 추진한다. /서예진 기자 syj@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여정 "韓 군부가 평양상공 침범 주범... 증거 확보"
▲ 감사원장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중대 범죄'라 판단 안 해" /사진 뉴시스

▲ 제주 추자도, 내년 1월 '국도외곽 먼서' 지정... "정주여건 지원"
▲ 한-프랑스 인도태평양대화 발족... 한미일 이어 두번째



▲ 홍준표, 한동훈 겨냥 "당 분열 가속하는 용병 정치 손절해야" /사진 뉴시스
▲ '기생집' 발원 논란 사과한 양문석 "평혜할 의도 전혀 없었다"

독일서 공공자금 지원기업 선정 초기자금 25억 포함 150억 확보

국제유가·환율 하락에 수입물가 2%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재생의학·ATMP 혁신 인정받아 독일 넘어 유럽시장 진출 '청신호' 테슬라·바이오엔텍·큐어백 등 獨 공적자금으로 시장 자리매김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왼쪽부터), 람다 바이오로지스 대표 안드레 거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경진 상무.

오가노이드(Organoid) 기반 차세대 재생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독일 재생 의학 및 첨단치료의약품(ATMP) 기업으로 선정됐다. 향후 2년간 25억원 규모 초기자금을 포함, 향후 150억원 가량의 독일 공공자금을 지원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2023년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장 재생치료제 '아톰(ATORM)-C'에 대한 ATMP 인증을 받은 바 있다. ATMP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조직공학 제품을 포함, 기존 의약품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대안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어 이번엔 독일 공공자금 지원 기업으로도 선정되며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이달 1일부터 향후 2년에 걸쳐 공공자금을 지원 받게 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올해 독일 현지 기업인 람다 바이오로지스(Lambda Biologics GmbH)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독일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회사측은 이번 자금 지원은 세계 시장 입지 구축은 물론, 재생 의학 및 ATMP 개발 분야 미래 가치를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테슬라(Tesla), 바이오엔텍(BioNTECH), 큐어백(CureVac) 등이 독일 공공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을 인정받고, 기업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매김한 바 있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스템과 ATMP 규제 체계를 갖춘 독일은 아톰-C와 같은 첨단치료제를 발전시키고 상용화하기 이상적인 곳으로 꼽힌다.

독일의 ATMP에 대한 지원과 규제 환경은 바이오테크 기업 성장에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일례로, 병원 면제(일반 절차보다 환자에게 빠르게 도달하는 제도) 경로가 있어 치료법 적용이 용이하다. 또한 학계, 산업계, 규제 기관 간 협력으로 상당한 자원을 제공해 유럽 내 큰 규모의 ATMP 임상시험을 주도한다.

독일은 병원 면제 경로로 2022년 4월 기준, 9개 ATMP가 적용되었으며 타 유럽 국가에 비해 빠른 상환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ATMP에 대한 빠른 접근성과 발달된 의료 인프라 등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재생 치료법 기술 발전에 좋은 토양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선정을 주도한 이경진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기술 개발 총괄이사(상무)는 "이번 공공 자금 지원은 자사의 재생 의학 및 ATMP 혁신을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독일의 국가적 차원 중개 연구 지원으로 실험실 연구와 환자 치료의 간극을 좁힐 수 있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유럽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의 공공 자금 지원은 초기 단계 이후에도 150억원 이상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받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영역을 확장해 치료법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한은, 9월 수출입물가지수 공산품 2.3%, 나프타 3.8% 하락

한 영향이다. 통상 환율 하락은 수입물가 하락→생산자물가 하락→소비자물가 하락의 과정을 거친다.

지난달 수입물가가 전월보다 2% 하락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영향이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가 소폭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4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35.19로 전월보다 2.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8월 3.5% 감소한 이후 2개월 연속 감소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3% 감소했다.

수입물가지수가 감소한 이유는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8월 77.60달러에서 9월 73.52달러로 5.3%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8월 평균 1354.15원에서 9월 1334.82원으로 1.4% 떨어졌다.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고 추가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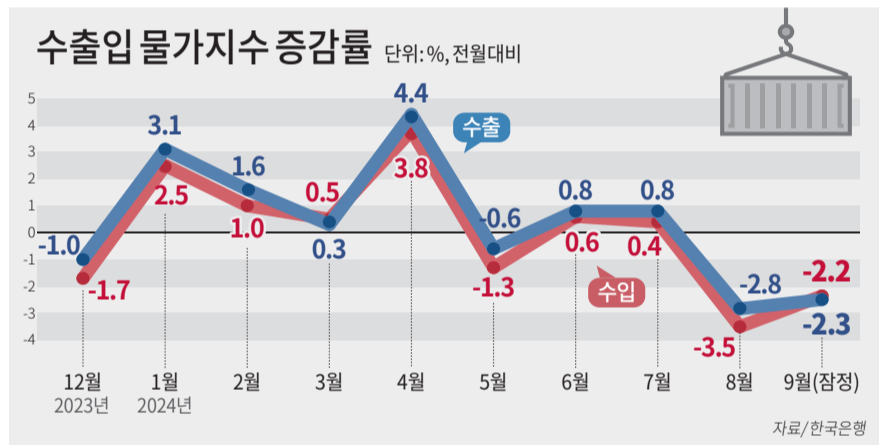
그 결과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공산품이 전월대비 2.3% 하락했다. 석탄및석유제품 중에서는 나프타가 3.8%, 화학제품 중에서는 메틸에틸케톤이 5.4% 하락했다.

광산품을 중심으로 원재료도 전월대비 3.4% 하락했다. 광산품 중 원유가격은 전월대비 6.6%, 망간광석은 14.2% 하락했다.

수입물가 하락분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우려 리스크가 익숙해지며 국제유가도 하락하고 있어 향후 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127.09로 한달 전보다 2.3%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2% 올랐다. 전년동월기준으로는 9개월 연속 상승세다.

/나유리 기자 yul115@



쌀 20만t 격리... 예측치 보다 7만t 많아

농식품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공공비축미 36만t 포함 56만t 매입 중간정산금 3만원→4만원 상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월18일 충남 당진을 찾아 2024년산 벼 작황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정부가 올해 쌀 초과생산량 예측치 12만8000톤(t)보다 7만t 이상 많은 총 20만t 규모의 시장 격리를 추진한다. 또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간정산금을 기존 40kg 포대당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벼멸구·수발아 등의 병충해 피해를 입은 물량도 전량 매입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오후 2024년 도산 쌀 관련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위원들은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정부는 크게 4가지의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t(지난 9월10일 발표한 사전 격리 2만ha, 10만5000t 포함)을 격리할

지한다. 농식품부는 10월 말까지 피해 벼 잠정규격과 매입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연내에 피해 벼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셋째,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5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한다. 정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많은 1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지난해 수준인 2조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9.30~11.29) 동안 쌀 생산연도·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신·구곡 혼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실장은 "올해 정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 중"이라며 "올해는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 격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LG에너지솔루션 미국 애리조나 공장 조감도.

삼성SDI, 전기차·ESS '투트랙 전략' 추진

>> 1면 '배터리업계, 美...서 계속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뿐 아니라 ESS, 배터리 생애주기 서비스(BaaS)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수익성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전기차 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ESS 사업 비중을 높일 것이라 밝혔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BaaS·에너지생애주기서비스(EaaS)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에너지 순환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삼성SDI도 전기차와 ESS를 동시에 겨냥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미향 수요 대응을 위해 제너럴모

터스(GM)와 손잡고 미국 내 35억달러 투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에 나서는 한편 SBB(삼성배터리박스) 1.5를 공개해 ESS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SBB 1.5는 삼성SDI의 두 번째 SBB라인업으로 북미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온도 유상증자를 통해 1조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며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혁신과 기술 개발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길어지는 숏폼 콘텐츠... “창작기회 제공” vs “중독·불법 유발”

국내의 숏폼 주도권 경쟁 치열
유튜브, 쇼츠 60초→3분 개편
티빙·웨이브, 숏폼 투자 확대



숏폼 콘텐츠 시장이 지각변동을 겪는 모습.

/Chat GPT 생성이미지

유튜브가 숏폼 콘텐츠 ‘쇼츠(Shorts)’의 길이를 기존 60초에서 3분으로 연장하면서 ‘숏폼 콘텐츠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콘텐츠 제작 방식은 물론 유통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작권 침해와 중독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 13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15일부터 자사 숏폼 서비스인 쇼츠의 최대 길이를 60초에서 3분으로 늘려 업로드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토트셔만 유튜브 쇼츠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디렉터는 이번 결정에 대해 “크리에이터(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요청한 기능”이라며 “더 길어진 쇼츠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욱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유튜브가 경쟁사인 틱톡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틱톡은 이미 지난 2021년에 숏폼 영상 길이 제한을 60초에서 3분으로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틱톡은 더 복잡한 이야기 구조와 다양한 광고 모델 수익화 등을 도입할 수 있었다고 자평한 바 있다. 현재 인스타그램 ‘릴스’와 네이버 ‘클립’도 최대 90초 이내의 영상을 올릴 수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 4월 기준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전 세계 월간활성사용자(MAU) 수 25억 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은 각각 20억명, 16억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틱톡은 유튜브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유튜브는 이번 개편을 통해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플랫폼 선두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

로 분석된다.

특히 3분으로 길어진 쇼츠는 크리에이터(창작자)에게 더 많은 창작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60초라는 시간제한은 복잡한 주제를 다루거나 깊이 있는 스토리를 전개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숏폼 콘텐츠는 기존 60초라는 시간 안에 짧고 강렬한 몰입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으나 제약이 많았다”라면서 “3분으로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면적인 캐릭터를 구현하거나 다층적인 서사를 쌓아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도 이에 발맞춰 숏폼 드라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티빙과 웨이브는 젊은 시청자들을 겨냥한 숏폼 콘텐츠 제작하고 있으며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 콘텐츠 플랫폼 리더는 최근 숏폼 드라마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며, 스포랩스는 숏폼 드라마 전용 플랫폼 ‘비글루’를 최근에 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숏폼 콘텐

츠의 사용 시간은 타 콘텐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중독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와이즈앱)에 따르면, 유튜브 사용자는 월평균 41시간 56분을 숏폼 콘텐츠 시청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 사용 시간보다 7배 이상 긴 수치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숏폼 콘텐츠의 빠른 정보 전달 방식이 사용자의 집중력을 저하하고,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저작권 무단 도용으로 인한 ‘불법 콘텐츠의 증가’다. 기존의 60초 쇼츠에서 이미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불법 콘텐츠를 양산하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면서 “영상 길이가 더 늘어나면 음악, 영화, 드라마 등의 저작물을 짧게 편집해 올리는 불법 쇼츠가 더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LG엔솔, 포드 차세대 상용차 배터리 공급

총 109GWh 규모 장기계약 체결
“유럽시장 선도적 지위 공고히 할 것”

LG에너지솔루션이 전 세계 상용차(Commercial Vehicle) 시장 강자 포드(Ford)에 대규모 상용차용 배터리를 공급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와 총 109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 상용차 배터리 셀·모듈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전량 생산될 예정이다.

이번 공급 계약은 지난해 양사가 추진했던 튀르키예 배터리 합작법인 공급 물량과 신규 추가 수주 물량 등이 포함돼 있다. 계약은 총 2건이며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75GWh,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4GWh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양사는 지난해 초 튀르키예 앙카라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JV) 설립을 추진했으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LG에너지솔루션 기존 생산공장에서 물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의 차세대 핵심 상용차 모델에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성공시킴으로써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기상용차는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차량 한 대당 배터리 탑재량이 많고, 평균 운행거리가 길다. 라이프사이클(모델 교체주기) 또한 길고, 눈과 비 등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운행하는 경우가 잦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배터리 공급사를 결정할 때 ‘고출력’ ‘장수명’ 등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 및 기술력을 갖춘 ‘프리미엄 배터리’를 선호한다. 그만큼 평균 단가가 높고 장기 계약도 가능해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로 각광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통해 자사 제품이 고객의 높은 요구조건을 충족할 만큼 성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전기 상용차 시장 성장은 가파르다. 글로벌 자동차 전문 리서치 업체 LMC 오토모티브(LMC Automotive)에 따르면 유럽 전기 상용차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은 약 36%로, 2030년에는 유럽 상용차 시장 내 전기차 침투율을 5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포드와의 이번 계약은 전기 상용차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높은 기술 경쟁력과 혁신적인 제품 경쟁력을 증명한 사례”라며 “탄탄한 현지 생산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유럽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코스피가 전 거래일(2623.29)보다 10.16포인트(0.39%) 오른 2633.45,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70.26)보다 3.55포인트(0.46%) 상승한 773.81에 거래를 종료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스IS

정치권 “지역특화 상품개발 등 비수도권 가입 대책 필요”

>> 1면 ‘주택연금 가입자...’서 계속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5대 광역시가 2.8%, 8도가 1.3%를 기록했다. 주택연금 해지 시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 주택 가격 상승분보다 많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가격 제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만큼, 이러한 수도권 편중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할 전망이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시내 아파트의 평균 거래 가격은 11억9966만원을 기록했다. 상향 이전에는 서울 시내 아파트로는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가입 기준 상향에 따라 수도권 내의 잠재적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0만명

을 돌파한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지만, 주택연금 가입자는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비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유인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은 고령자 비중이 높아 주택연금의 필요성이 더욱 큰데도 주택연금 가입률이 낮고, 소득 보장도 충분하지 않다”며 “주택금융공사는 지역 특색을 고려한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 편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경총, 기업경영 등 186건 규제개혁 건의

지배회사 계열편입 요건 완화 등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 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분야의 186건의 규제 개혁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장 애로 사항으로는 비대면 택배 수령, 기업활동을 위한 사도 개설 범위 확대, 지구단위계획 전기차충전소 설치 허용 등이 담겼다.

안전 분야에서는 CCTV설치 의무화 및 국산차와 수입차의 이원화 검사 인력 기준 합리화 등 35건을 들었다.

기업경영 부분에서는 공정거래법

형사처벌 완화, 지배회사의 계열편입 요건 완화, 주주총회 서면통지 의무 전자문서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 확대, 관세 보정신청 및 세액 납부기한 완화 등 세제 분야 24건도 포함됐다.

노동 부분은 집회 및 시위 관행 개선, 육상화물운송업 운전자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총은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10개 부처가 관할하는 30개 법령상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해상풍력 발전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연계거리 산정기준 완화 등 환경 분야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백대성 기자 iunm@

업토버 랠리 시작?... 비트코인, 10월 하락분 만회하고 상승세

(Up+October)

美 대선 기대감에 나흘 사이 11% ↑ 중동 위기 극복 후 강제장 진입 신호 2019년부터 5년 연속 업토버 효과

10월 진입과 함께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사이 5% 넘게 상승하면서 이달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기대감과 마운트곡스 상환 연기 등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나 10월 강제장인 '업토버' 랠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한때 6만6400달러까지 회복하면서 이달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단행 후 회복세를 보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초 중동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뉴시스

6만달러까지 밀려났다.

이후 미국 고용지표가 기대 이상으로 크게 개선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회복세를 보였지만,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미 고용둔화 우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사록 등이 악영향을 주면서 지난 11일 5만9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나흘사이 11% 넘게 상승한 배경에는 마운트곡스 상환 연기

와 미국 대통령 선거가 꼽힌다.

마운트곡스는 지난 7월부터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상환하기 시작해 오는 31일 상환을 끝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1일 공지를 통해 상환 계획을 2025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마운트곡스가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하는 비트코인은 현재 28억달러(한화 3조8000억원)으로 상환이 연장되면서 약재가 견어졌다는 평가다.

또한 다음 달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일조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지난 11~13일(현지시간) 하버드 CAPS-해리스폴이 등록 유권자 3145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경합주 7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8%,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집계됐다.

계됐다. 오차범위는 ±1.8%포인트(p)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p까지 벌어졌지만 대선을 3주 앞둔 시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게 나온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親) 가상자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은 '트럼프 자산'으로도 분류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일제히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미국 대선 직전에 비트코인 시세가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올해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이같은 상승 기대감에 업토버(Uptober) 랠리가 이미 시작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토버는 올라간다는 뜻의 '업(Up)'과 10월의 '옥토버(October)'를 합친 말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시세는 평균 23% 상승했고 지난 2014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는 5년 연속으로 업토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과거부터 10월 가격 추이를 분석해보면 10월 초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15일 이후로 가격 반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추후 가격 상승 가능성 높은 상황이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 센터장은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후보들의 선거 승률과 비트코인 가격 간 상관관계가 이전보다 줄어 들었다"며 "두 후보 모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비트코인 같은 대체자산이 주목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국민연금 지분 7.83%, 고려아연 경영권 운명 가른다

양측 모두 과반수 지분 확보 실패 MBK 연합, 전체 지분의 38.47% 최윤범 회장측·우호 지분 33.99%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서 5.3%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MBK연합이 지난 14일 공개매수를 마무리하며 고려아연 전체의 38.47%, 의결권 기준 48%를 확보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 측의 우호 지분 등 33.99%를 넘어섰지만 양측 모두 과반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7.83%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

금이 주총 표 대결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MBK 연합은 결제일인 17일 주당 83만원에 청약 지분을 매입할 방침이다. 당초 예정했던 목표 매입 수량엔 못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진 못했지만 향후 임시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회 장악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고려아연 정관에는 이사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사수는 현재 13명으로 MBK연합이 신규 이사를 12명 이상 선임하면 기존 이사인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

다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의 의결권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결

과를 쉽게 예측하긴 힘들다.

현재 MBK연합의 공개매수가 종료되면서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는 ▲MBK·영풍 38.47% ▲최윤범 회장 및 우호지분 33.9% ▲국민연금 7.83% ▲자사주 2.4% ▲기타주주(17.4%)로 구성된다.

23일까지 진행되는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가 마무리 되면 지분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은 주당 89만원에 최대 물량을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MBK연합이 확보한 5.34%를 제외하면 현재 남은 물량은 14.66%로 추정된다. 최 회장과 손을 잡은 베인캐피탈

이 매입하는 2.5%를 제외하면 최 회장 측이 얻을 수 있는 자사주 물량은 12.16%이다. 다만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결국 주총 표대결에 필요한 의결권을 기준으로 ▲MBK·영풍 45.2% ▲최윤범 회장 및 우호지분(베인캐피탈 포함) 42.5% ▲국민연금 9.16%가 된다. 양측의 차이가 2.7%포인트에 불과해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이들의 경영권 분쟁도 정해질 전망이다.

아직까지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고려아연이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한다는 점

을 강조한 만큼 국민연금의 선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앞서 올해 3월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진행된 영풍과 고려아연의 표대결에서 고려아연 측 안건에 모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고려아연의 미래 신사업과 중장기 기업 가치 향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임직원 일동은 국가기간산업을 지켜낸다는 일념으로 절대로 해외에, 그것도 중국에 우리의 기업을 팔아 넘길 수 없다는 필사의 각오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비철금속 세계 1위 고려아연'을 '친환경에너지 소재기업'이라는 더 큰 세계 1위로 키워,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논란... '안전조치 부실' 도마 위

한노위 국감

추락방지 조치 미흡에도 작업 재개심의 과정에서 안전관리 부족 질타

뉴진스 하니, 따돌림 '논란' 직접 증언 "하이브,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

15일 열린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한노위)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오션 사업장의 사망사고와 관련, 당국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오션의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간간과 그물망 등이 부실했기 때문인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중지 해제 결정을 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재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작업중지된 9개를 전부 다 현장 점검 하지는 못했다. 전날부터 현장 감독이 진행 중이고, 중점적으로 확실히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화오션의 작업중지 이후 안전간간이 부실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틀면서 미흡한 안전조치에도 작업중지가 해제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감독관 20여 명이 현장근로 감독을 다시 착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차 심의를

통해 작업중지가 해제됐는데 현장은 여전히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공장으로 보인다"면서 "한화오션이 심의 관련 자료들과 심의위원회 명단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감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화오션에서는 지난 1월 12일 가스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4일에는 협력업체 소속 작업

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에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으나, 지난달 9일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11일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오션 측으로부터 받은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검토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특별 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 총 9일 동안의 특별감독 후 61개 조항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6555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법 조항 건수는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 과태료 15건이고 사용중지 2건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간간 미설치 및 기준 부적정 ▲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설치 ▲사다리식 통로 부적정 ▲중량

물 작업 시 정격하중 미표시 ▲방폭 구조 기계·설비 미사용 등 위반이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따돌림' 논란 '과 관련해 직접 증언했다. 어도어 대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증인으로 자리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으나 무시당했고, 해당 매니저가 '무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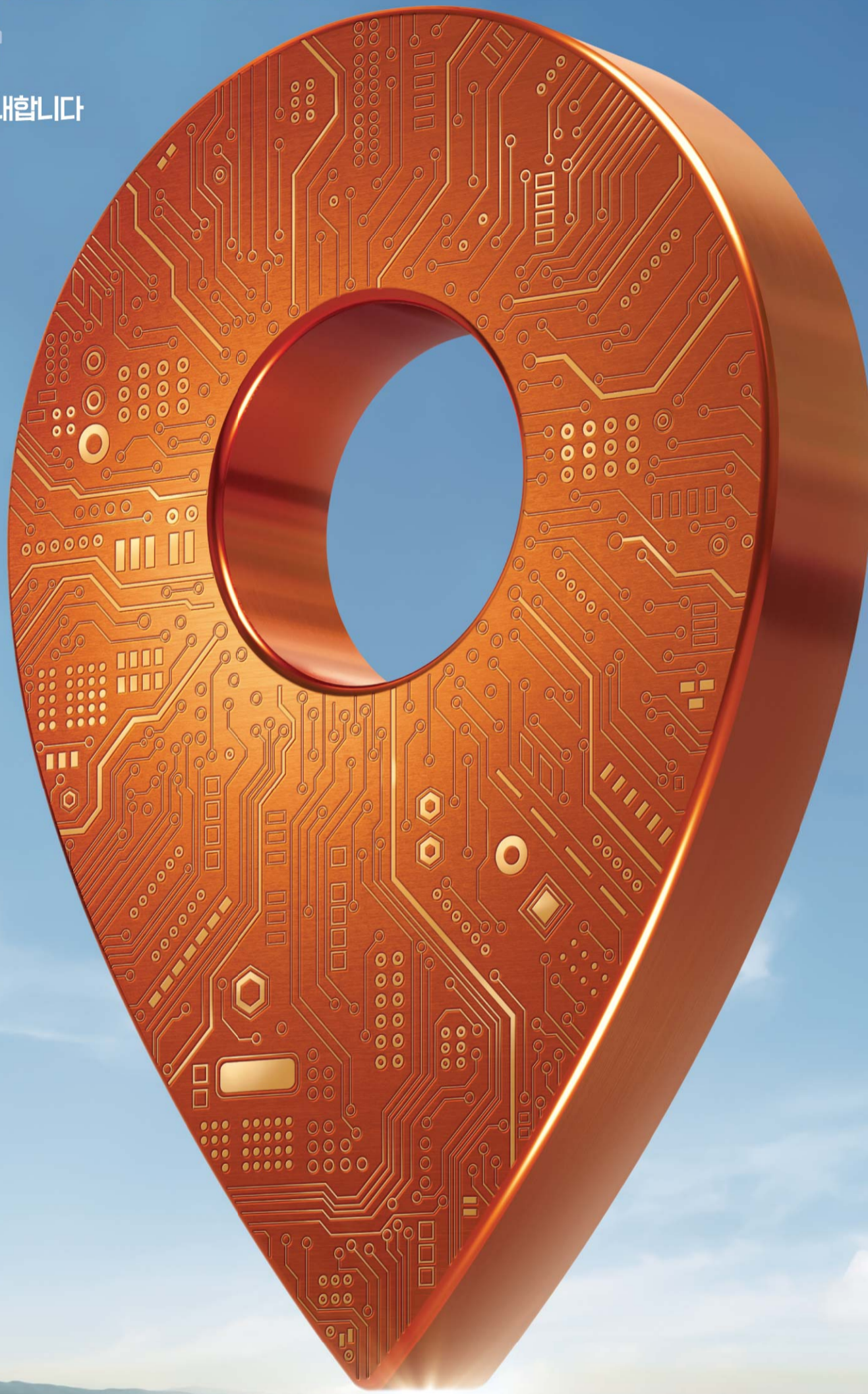
하니는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김주영 어도어 대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하실 것들이 더 있었다"며 "앞으로 미래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대표는 "하니 씨의 주장을 믿고, 답답한 심정에서 입증 자료를 찾으려 노력하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AI가 만들 미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완성됩니다

SK하이닉스가 미래로 안내합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작지만 의미있는’ 10·16 재·보궐선거… 與野 리더십 판가름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최대 격전지 野 승리 시 한동훈 대표 리더십 균열

영광군수 선거, 사전투표율 최고 野 텃밭서 진보정당 약진… ‘당혹감’ 李 “민심 거역한 정권 일깨울 기회”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강화군수 보궐선거, 영광군수 재선거, 곡성군수 재선거가 열리는 10·16 재·보궐선거가 ‘작지만 의미있는 선거’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대표의 리더십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야권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됐다. 최근 4번의 선거에서 금정구민들은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에 3번의 승리를 안긴 바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송파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가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에게 패배하게 된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의 균열이 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있는 한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선거다. 한 대표는 지난달 11일부터 10월15일까지 부산 금정구만 총

6번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여당 텃밭에서 하나로 뭉쳐 승리함으로써 좋은 분위기를 이어 나갈 수 있다. 다만, 병환으로 인한 별세로 치러지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혈

세 낭비’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뜨거운 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14일) 밤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보면 금정구라는 곳은 지금까지 국민의 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한 후보가 이기게 되면 즉각적으로 집권 세력 내부에 큰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며 “당장 한 대표가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영광군수 선거의 경우 장세일 민주당 후보,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뜨거운 선거 열기를 반영하듯, 영광군수 재선거의 사전투표율은 43.06%로 2014년 사전투표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영광에서 신홍 진보정당이 약진하면서 민주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

기다.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호남에서 한달살이를 하며 지역주민들을 만났고, 진보당은 민주당에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농사와 청소 등을 돕는 등 바닥 민심에 다가섰다.

민주당의 텃밭인 영광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 승리할 경우, 국민의당의 사례처럼 호남 지역 정당으로서의 발판을 삼을 수 있다고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으로 지원 유세에 합류하지 못하자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이번 선거는 전남 영광, 곡성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한 명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깨울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대통령실 관저이전·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의혹 ‘집중질의’

법사위·문체위 국감

野 “관저 이전 감사 회의록 제출해야” 與 “野 압박 ‘보복성’ 성격 짙어” 김 여사, KTV 무관중 공연 관람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15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김건희 여사 국악 공연 관람 논란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감사원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과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회의록을 감사원이 제출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압박이 ‘보복성’ 성격이 짙다며 감사위원들이 자유로운 발언이 공개되면 추후 감사원의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오후 법사위 질의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지금도 감사원이 대통령의 지원기관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감사청구로 하게 된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서 왜 하필 용산으로 갔느냐가 이 사건의 ‘머리’에 해당한다. 관저의 이전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전 과정에 누가 관여했느냐는 ‘몸통’”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어떠한가. 284억원의 공사계약만 감사하고 주의 통보를 내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몸통과 머리를 빼놓고 ‘발가락’만 감사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왜 이전에 대한 이유”라며 “감사원은 정부 중요한 정책 결정이니까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왜 감사했다. 이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은 공무원을 직무감찰하고 세입세출 결산 등 각 기관의 회계 결산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헌법기관”이라며 “법사위가 양원제로 치면 상원급 상임위인데, 감사하면서 야당 의원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제가 어안이 병병하다”고 지적했다.

문체위 국정감사는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국악 무관중 공연에 김 여사가 찾아와 ‘황제 관람’을 했다는 의혹이 야당의 집중 공격대상이 됐다.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조 모 PD는 김 여사의 황제관람 논란과 관련해 문체위로부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평생 무관중 방송에서 리플렛이 있는 경우를 한번도 못 봤다”며 “이 견적상 리플렛이 한 장당 4만원 꼴이다. 과연 황제관람에 걸맞은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만원이나 들어서 50부를 제작했다. 무관중 공연엔 절대 필요하지 않은 ‘VVIP’를 위한 고가의 의전 물품이다. 철저하게 사전에 기획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태홍 기자

‘티메프 사태’ 구영배,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뉴텐그룹 대표)

형사 피의자로 검찰 수사 중 국회 증언내용 재판에 영향 우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정산 지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뉴텐그룹 대표가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구 대표는 자신이 형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증언하는 내용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구 대표는 지난 7월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구속영장에도 적시되는 등 증언 내용이 피의사실과 연관 있고, 영장 기각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면 그 내용이 또다시 형사사건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30일과 10월2



일 이틀간 구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들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고 봤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약 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또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67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5만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만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구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로 소비자와 입점 업체의 피해가 잇따르자 1조6000억원의 피해 구제 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구영배 뉴텐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구 대표는 지난 7월30일 티메프 사태 피해가 발생하자 열린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난 15년간 제 모든 걸 걸고 비즈니스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고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면서 “시간을 주시면 티몬과 위메프를 구조조정 및 합병해서 정상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장심사 당시엔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정무위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는 국감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면 국감을 형해화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尹 “동남아 순방, 실질 혜택으로 이어져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성과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로 경제협력분야에서의 전략적 공조 강화, 외교 네트워크 강화 등을 꼽으며 “이번 순방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각 부처의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필리핀·싱가포르 국민방문과 라오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의 참석 등 성과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국방방문의 성과로 ▲수교 75년 만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한-필리핀 FTA 조속 시행 ▲대형 해상교량 및 라구나 호수순환도로 등 필리핀 대형 인프라 사업 진출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바탄 원전재계 타당성 조사 협력 MOU 체결 등을 들었다. 이외에 군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방산 수

출길도 뒀다는 점을 언급했다.

싱가포르 국민방문 성과로는 ▲내년에 수교 50주년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합의 ▲LNG 협력 MOU 체결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체결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확실한 대외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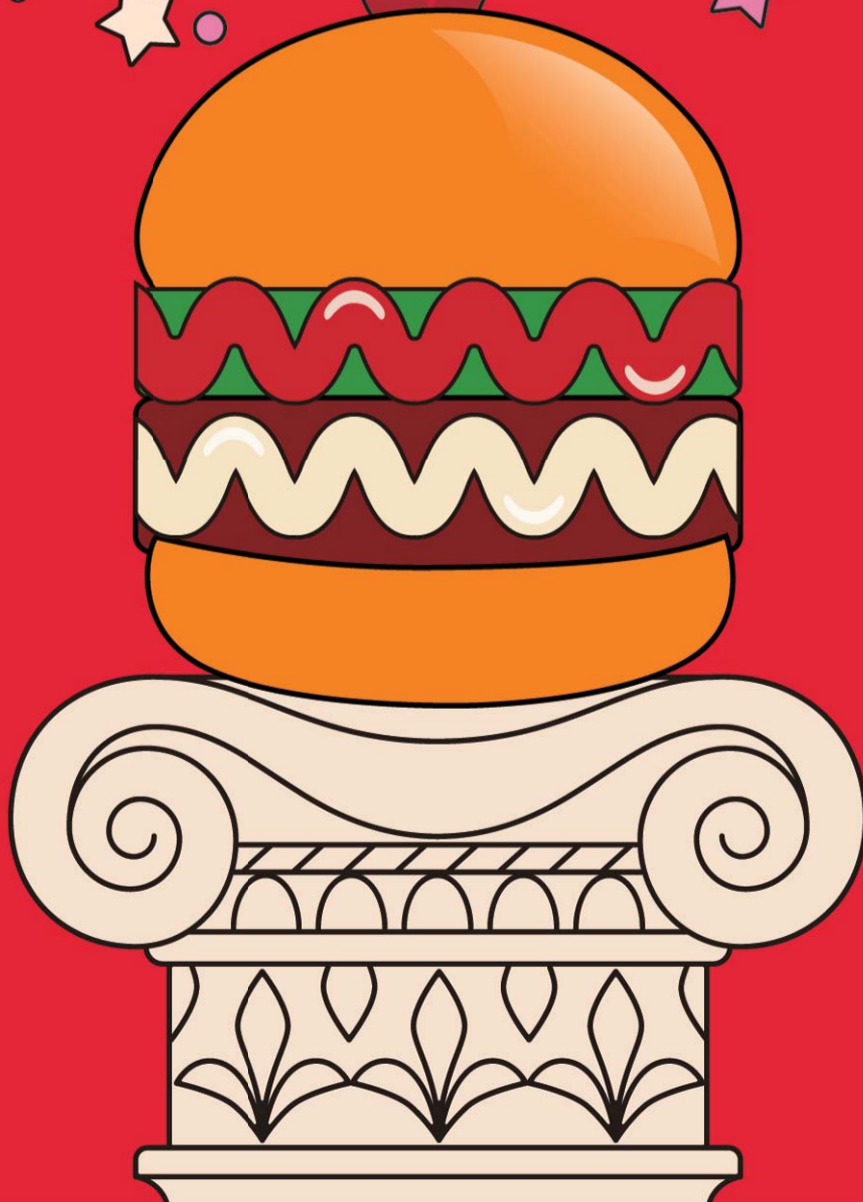
또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계기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과 나눈 논의 결과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해 “양측은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했다”며 “우리가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것이 1989년인데, 이후 35년간 우리의 대(對) 아세안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Ria's BURGER ART MUSEUM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33

2024.10.03-10.20



“리테일·중소대출·플랫폼 부문 집중 투자”

‘30일 상장’ 케이뱅크 비전 발표
1조원 이상 자금유입 효과 기대
대출상품 유형·규모 확대에 사용
‘업비트 독과점’ 관련 우려에
예치금 줄어 뱅크런 가능성 낮아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발판삼아 비
대면 금융 혁신의 속도를 높여겠다.”

케이뱅크 최우형 은행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상장 이후 사업계획과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2017년 4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는 7년 6개월여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한다. 공모규모는 총 8200만주, 주당 희망 공모가는 9500원~1만2000원으로 희망공모가 범위 상단 기준 공모금액은 9840억원이다.

최 행장은 이번 상장으로 1조원 이상의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모 유입자금이 더해 상장완료시 7250억원의 과거 유상증자 자금이 추가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BIS) 비율 산정 때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며 “상장에 따라 1조원 이상의 자금유입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상장 이후 사업 계획과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상장으로 유입된 자본은 대출상품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리테일 ▲중소기업대출(SME) ▲플랫폼 등 세가지 부문에 집중해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 행장은 “리테일 부문은 경쟁력을 갖춘 요구불 예금과 고객 니즈에 맞춘 특화 수신상품을 출시해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늘릴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저원가성 예금을 확대해 효율적인 자금조달구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개인사업자(SOHO)와 중소기업대출(SME) 상품도 확대한다.

최 행장은 “현재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대출상품이 출시돼 있고,

매일 1000건이상의 대출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내년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담보대출상품을 확대하고 이후에는 법인 소기업 중기업까지 영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오픈 에코시스템 전략을 앞세워 플랫폼 사업도 확대한다. 오픈 에코시스템은 각 산업부문의 선도기업과 다양한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채권, 금과 은 등 원자재, 외환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부터 대체불가능토큰(NFT), 명품, 예술품 등 새로운 자산과 대체 투자영역을 아울러 투자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 행장은 이날 가상자산 투자 플랫

폼 업비트 독과점 관련 우려와 관련해 의존도 및 예치금 비중이 줄어 대량자금인출(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2021년 12월 53%였던 업비트 고객의 예금 비중이 올해 상반기 17%까지 낮아졌고 예치금 비중도 2021년에는 절반이 넘었으나 전체 수신 규모 22조원 가운데 3조 정도로 줄었다”며 “이 예치금마저도 대출 재원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와 같은 염려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16일까지 진행중인 수요예측을 거쳐 이달 18일 공모가를 확정한다. 일반 청약은 21일부터 22일까지이며, 공모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상장일은 오는 30일이다.

최 행장은 “케이뱅크는 ‘생활속의 케이뱅크 혁신투자 허브’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며 “공모자금을 리테일과 SME, 플랫폼이라는 3대 부문과 리스크 관리 및 기술(Tech)에 활용해 상생금융과 혁신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카드 News

삼성카드 신세계 신백리워드 카드 이용금액 최대 3% 적립

삼성카드가 신세계백화점 특화카드를 공개했다.

삼성카드는 15일 ‘신세계 신백리워드 삼성카드’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고객 혜택을 ‘신백리워드 포인트’로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다. 전월 이용 실적 및 적립 한도 없이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최대 3%를 적립할 수 있다.

국내·외 가맹점에서 이용한 금액의 0.5%를 기본으로 적립한다. ▲신세계백화점 ▲음식점 ▲주유 결제 시에는 1%, ▲대중교통 ▲택시 ▲제과·아이스크림 ▲편의점 결제 시에는 적립 비중을 1.5%로 상향한다. 주말에는 적립률을 2배 높인다.

롯데카드 오케이몰X디지로카 40만원 쓰면 1.2% 할인

롯데카드는 15일 ‘오케이몰X디지로카’ 카드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전월실적 4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국내의 모든 가맹점에서 1.2%를 할인한다.

카드 발급 첫해에는 연간 카드 이용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오케이몰에서 50만원 이상 결제 건에 3만원을 추가 할인한다.

연말까지 오케이몰에서 20만원 이상 결제 시 6·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연회비는 2만원이다. 디지로카앱과 오케이몰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KB국민카드 KB페이 이용객 대상 미식여행 지원금 제공

KB국민카드는 KB페이 이용 고객 대상으로 포인트리와 캐시백을 제공하고 항공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말일까지 ‘최대 300만원 득템하고, 가을 미식 여행 고고!’를 운영한다. 응모 후 스타샵 적립가맹점에서 KB페이로 5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 ▲미식여행 지원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등이다.

같은 기간 ‘할인받고 하늘 나는 기분! 국제선 항공권 최대 12만원 즉시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장거리 10%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모든 노선 5% 할인한다.

금리 인하기 역풍... 보험사, CSM 감소로 건전성 경고등

(보험계약마진)

보험사 ‘금리하락이 미치는 영향’
지급여력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
내년 보험산업 성장성 둔화 예고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보험사의 건전성에 악재가 터졌다. 내년도엔 보험업계의 성장성이 둔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보험 흑한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인하에 따라 보험사들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금리 인하를 반기지 않는 업권 중 하나다. 금리가 내려갈수록 보험이익과 자산운용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급여력비율(K-ICS)도 하락해사다.

보험연구원원이 지난 2월 발표한 ‘금리하락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하락 시 신규 보험계

약의 경우 보험계약마진(CSM) 감소로 보험이익 역시 감소한다.

금리가 하락하면 장기금리의 영향이 큰 현금 유출액 현재가치가 현금유입액 현재가치보다 증가해 CSM이 감소한다. 신규 자산의 이자수의 감소로 장기적으로는 투자이익 또한 하락한다.

특히 금리 하락은 지급여력비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K-ICS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 적용으로 금리 하락 시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게 증가한 보험사의 경우 자본 감소로 K-ICS 비율이 하락한다.

기존 지급여력비율이었다던 RBC의 경우 보험부채 원가평가 적용으로 금리 변동 방향과 반대로 변화했으나 K-ICS는 금리 변동 방향과 유사하게 변화한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지

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 국내 보험사들의 K-ICS 비율이 일제히 하락한 바 있다. 22곳의 생명보험사 중 16곳, 19곳의 손해보험사 중 12곳이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추가 하락으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원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p) 하락하면 생보사 K-ICS 비율은 25%p, 손보사는 30%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K-ICS 도입 이후 기준금리가 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존 RBC 구조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면 건전성이 높아졌겠지만 K-ICS는 부채에 대한 시가 평가를 해야 하므로 평가 방식 자체가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채에 대한 시가 평가

부분에 따라 금리 인하는 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와 함께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내년도 보험산업 성장성이 둔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건전성 악화와 성장성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보험산업이 흑한기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0일 열린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내년 보험업계 초회보험료가 전년 대비 9.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할 전망이지만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이 감소해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한강뷰 로또단지에 1.6만명 청약... 특공 경쟁률 557대 1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4세대 경쟁률 1493대 1

한강뷰가 가능한 알짜 입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오면서 특별공급 청약에만 1만6000명이 넘게 몰렸다.

15일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전일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을 진행한 결과 30세대 모집에 1만6724명이 접수했다. 평균 경쟁

률은 557대 1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4세대를 모집한 신혼부부에 597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1493대 1로 집계됐고, 6가구를 모집한 생애최초 역시 6043명이 접수해 경쟁률이 1000대 1을 웃돌았다.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단지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대 수방사 부지에 지상 최고 35층 5개동, 556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서울 중심지인데다 한강조망까지 가능한 입지라 사전

청약 당시에도 경쟁률이 세자릿수를 기록한 바 있다.

총 556세대 가운데 공공분양 주택은 263세대다. 전용면적은 모두 59㎡다. 당초 사전청약 당첨자 224가구 중 211가구만 본청약을 신청하면서 52세대에 대한 청약이 진행된다. 분양가는 타입과 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9억원 안팎이다. 인근 래미안 트윈파크는 59㎡가 지난 8월 15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아파트 투시도.

/홍페이저

/김정산 기자 kimsan119@

“전기차·MINI 마음놓고 타세요” BMW, 무상점검 등 서비스 강화

26일까지 ‘닥터·홈커밍’ 워크 전 차종 40가지 항목 무상점검 엔진오일 등 패키지 상품 할인도

국내 수입차 업계 1위의 BMW그룹 코리아가 프리미엄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BMW 그룹 코리아는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보낸 BMW와 MINI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 점검과 정비비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는 프리미엄 AS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BMW 그룹 코리아가 오는 26일까지 진행하는 ‘닥터 BMW 워크’ 및 ‘MINI 홈커밍 워크’는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리미엄 AS 캠페인이다.

BMW 그룹 코리아는 행사기간 동안 소모품 무상 교환 서비스가 무료인 BMW(5년/10만km) 및 MINI(5년/6만km) 전 차종을 대상으로 타이어, 브레이크, 각종 오일 및 필터류, 배터리, 차량 실내외 위험물 등 외부 장착물 40가지 항목에 대해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수전기차의 경우 지금까지 판매된 모든 모델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8월 시작한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와 냉각 시스템, 고전압 셀모듈 등의 육안 점검 및 고장 코드 조회 등을 진행하며, 타이어와 냉각수 상태 등도 추가로 확인한다.



닥터 BMW 워크

캠페인 기간에는 유상 수리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BMW 및 MINI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수리 시 오리지널 부품 및 공임을 20% 할인하여 제공하며 브랜드 오리지널 타이어를 구매하여 장착하는 고객에게는 타이어 가격의 10%, 공임의 최대 50%를 할인해 준다.

더불어 엔진오일과 필터 패키지, 브레이크 패키지, 하체 패키지, 냉각 시스템 패키지 등 총 12가지로 준비된 패키지 상품을 30% 할인 금액(부품 및 공임 포함)으로 제공한다.

기존 블랙박스를 BMW·MINI AC E 3.0 프로 블랙박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는 부품 및 공임 3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단 업그레이드 장착 가능 여부는 서비스센터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BMW·MINI

프리미엄 소화기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AS 캠페인을 이용하는 고객은 My BMW나 MINI 앱을 활용한 ‘서비스 라이브(Service Live)’ 기능을 통해 내차의 정비 현황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도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 후 진행 여부 결정이 가능해 보다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AS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사은품 혜택도 푸짐하게 준비했다. BMW 고객은 150만원 이상, MINI 고객은 100만원 이상 결제 시 BMW·MINI 프리미엄 소화기를 선물로 제공하며,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서 서비스상담 예약 및 입고 시 BMW·MINI 장우산을 증정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HD현대중, 임단협 진통… 총파업 위기

업계 최고 대우에도 노사 갈등 여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타결하며 노사 상생을 통한 경영 안정화에 나서고 있지만 HD현대중공업은 노사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부(HD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연속 파업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사측이 첫 제시안보다 높은 금액을 담은 2차 제시안을 내놓았지만 노조는 인상폭을 문제 삼으며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5일 기본급 10만2000원(이하 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

금 400만원 등을 제시했다가 노조가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며 총파업을 벌이자 지난달 25일 교섭에서 2차 제시안을 내놨다. 2차 제시안은 기본급 12만2500원 인상, 격려금 400만원+상품권 30만원, 중대재해 미발생 성과급 신설 등으로 기존 제시안보다 기본급 인상과 상품권 등이 추가됐지만 노조는 이 역시 거부했다.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동종업계 최고의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사 입장차를 좁히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생산 차질에 따른 인도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STX, 중남미에 국산 카지노 장비 수출

강원랜드 독점 공급 계약 체결

글로벌 종합상사 STX가 강원랜드와 협력해 중남미 지역에 국산 카지노 장비를 정식 수출한다.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기기업이다.

STX와 강원랜드는 강원 정선군 하이원그랜드호텔에서 카지노 장비 독점 공급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본 계약을 통해 STX는 중남미에서 강원랜드 카지노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이번 계약은 우루과이에 강원랜드의 자체 개발 슬롯머신 ‘KL Saberi’ 40대를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STX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STX의



(왼쪽부터) STX 박상준 대표, 강원랜드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이 ‘카지노 장비 독점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TX

첫 카지노 시장 진출로써 기대가 크며,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국내 기업들의 장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 세계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화시스템, 저궤도 위성용 ISL 장비 개발 (위성간 레이저 통신)

1Gbps 속도로 인터넷 원거리 접속 미주·유럽 등 해외시장 적극 진출

한화시스템이 국내 기업 최초로 저궤도 위성용 ISL(위성간 레이저 통신) 장비 개발 및 성능시험에 성공했다. 한화시스템은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수행한 ‘저궤도 위성용 ISL 장비의 첫 중거리 통신 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우주 공간에 비해 통신 장애 요소와 날씨·지형 변수가 많은 지상시험을 바탕으로 1Gbps 전송 속도의 인터넷 원거리 접속에 성공함으로써 레이저 통

신 운용성을 1차 검증한 것이다.

ISL은 위성의 데이터를 ‘레이저’로 주고 받으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로, 초고속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군집으로 운용되는 저궤도 위성간 통신이 실현되면, 지상 기지국 1곳 만으로도 세계 어디서나 국경을 넘어 고속통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지상 통신이 갖고 있던 산악·밀림·해양·극지대 등 오지 곳곳과 전쟁 시 통신단절 등의 문제를 대폭 해소할 수 있다.

ISL 기술이 적용된 저궤도 위성은 스

마트폰 무선통신에 쓰이는 전파가 아닌, 빛의 영역인 ‘레이저’를 이용해 통신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지연이나 끊김 없이 처리할 수 있다.

현재 미국·독일·일본 등 일부 선진국만 확보하고 있으며, 스페이스X·아마존 등 글로벌 항공우주기업을 중심으로 우주 인터넷 실현을 위한 ‘ISL 탑재 저궤도 위성 통신망’ 구축이 시도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대한민국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향후 미주·유럽 등 해외 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방침이다. /차대성 기자 iamds@

/양성운 기자

삼성전기, MLCC 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

근무복 재활용… 내년 전면 도입

삼성전기가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제조 과정 중 발생한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성공했다.

삼성전기는 MLCC 제조 과정에 사용된 폐기물을 재활용한 근무복 제작에 성공해, 이달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활용’은 폐기물을 원재료로 하고 아이디어와 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업사이클링(upcycling)을 의미한다.

재활용으로 제작한 근무복을 공인기관에서 피부 자극성 테스트, 유해 성분 검사 및 세탁 수차례 변화, 일광 및 땀 복합 견뢰도 등 다양한 평가를 통과한 후 3개월간 임직원 착용감 테스트도 거쳤다.

삼성전기는 재활용 근무복 300벌을 제작해 이달부터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신규 근무복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기아, 해양 폐플라스틱 소재 트렁크 라이너 공개

유럽 등 일부지역 한정 판매

기아가 세계 최초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서 추출한 해양 폐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차량 용품을 공개했다.

기아는 네덜란드 비영리단체 ‘오션클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자동차 용품인 EV3 전용 한정판 트렁크 라이너(매트)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EV3 전용 한정판 트렁크 라이너는 세계 최초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서 수거한 후 추출한 해양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차량 용품이다. 재활용 해양 플라스틱을 40% 사용했으며 기존 트렁크 라이너만큼 우수한 내구성과 품질을 자랑한다.

EV3 전용 한정판 트렁크 라이너는 유럽 등 일부 지역에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기아와 오션클린업이 세계 최초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서 추출한 해양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EV3 전용 한정판 트렁크 라이너.

갤럭시 S24 울트라, 美 소비자 평가 1위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울트라’가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의 최신 스마트폰 평가에서 애플의 아이폰16 프로 맥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1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리포트는 스마트폰 랭킹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를 총점 87점, 1위로 평가했다. 같은 점수를 받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 역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컨슈머리포트의 평가 항목 10개 중 신뢰도, 만족도, 카메라, 디스플레이, 내구성, 성능 등 항목에서 가장 높은 5점을 받았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사용 편의성과 통화에서 4점을 받아 갤럭시 S24 울트라보다 총점에서 1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민 기자 hyem@

장례식서 고인과 AI 대화까지... '디지털 추모' 새로운 시대

AI·메타버스가 바꾼 추모 문화

AI 아바타 통한 리메모리 서비스
디지털 묘지·가상 장례식장 운영
AI 챗봇, 고인 목소리·말투 재현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전통적인 '장례·성묘 문화'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국내·외 관련 업계에서는 디지털 추모관, 메타버스 장례식, AI 아바타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추모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15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정보기술(IT) 업계와 장례업계가 협업해 '디지털 추모' 방식을 적극 도입하며 이 같은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상조회사와 IT기업이 협력해 비대면 추모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는 IT기업 '피플맥'과 협력해 지난해 QR 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추모관' 서비스를 선보였다. 고인의 유품이나 묘역에 부착



AI스타트업 '딥브레인'과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이 협업해 지난해 출시한 '리메모리2'. /딥브레인

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고인의 약력, 가족 정보, 묘역 위치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추모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사진과 영상을 통해 고인을 기리거나 위로의 글을 남길 수 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코로나 19 이후 모든 산업에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장례 전·후

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I스타트업 '딥브레인'은 고인의 생전 모습을 'AI 아바타'로 재현해 고인과 가상으로 재회할 수 있는 '리메모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한 장과 10초 분량의 음성만 있으면 AI 아바타를 제작할 수 있으며, 생전 고인과

터뷰를 통해 다양한 에피소드를 AI에 학습시켜 복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딥브레인 관계자는 "생명보험사, 추모공원, 병원 등과 협력해 리메모리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이들이 가상 아바타를 통한 추모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딥브레인은 프리드라이프와도 협업해 해당 서비스를 상조 상품에 포함시켰으며, 현재는 '리메모리2'를 개발해 시범테스트 중이다.

일본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디지털 장례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장례 기업 알파클럽은 메타버스 플랫폼 '무사시노'를 통해 디지털 묘지를 운영하고, 가상 장례식을 제공하고 있다. 유족과 친지들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로 참여해 시·공간 제약 없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다.

일본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는 데에는 '가족의 역할 변화'가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장례기업 가마쿠라 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일본 무덤 구매자 중 '묘를 관리해 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8%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4.9% 감소한 수치로, 사망 후 묘를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증가하면서 가족 중심의 전통적 장례 방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데드봇(Deadbot)'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인의 말투와 목소리를 재현한 AI 챗봇으로, 유족이 고인과 가상으로 대화를 나누며 심리적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추모 기술'이 프라이버시와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고인의 동의 없이 AI로 생전 모습을 재현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크고, 유족들에게 심리적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가상 인물과 실제 인물을 혼동할 위험성도 있어 이러한 기술 사용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SKT, PQC·QKD 결합한 이중 암호화 기술 상용화

<양자 내성 암호·양자키분배>

세계 최초 양자암호 하이브리드 출시
양자 암호키 동시에 생성·분배 보안성 ↑
글로벌 시장 선도 신규사업 개척나서

SK텔레콤(SKTEL)이 양자암호 분야의 양대 기술로 평가되는 양자 내성 암호(PQC)와 양자키분배(QKD)를 하나의 제품으로 구현하는 '퀀텀 점프'에 성공했다.

SKTEL은 PQC 표준 알고리즘과 QKD 시스템을 결합한 'QKD-PQC 하이브리드형 양자암호' 제품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QKD는 양자 역학의 특성을 기반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송수신 양방향에서 양자 암호키를 동시에 생성·분배해 네트워크 보안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론적으로는 해킹이 불가능하다. PQC는 수학적 난제를 활용해 양자컴퓨터가 이를 풀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하는 암호화 방식이다.

하이브리드형 양자암호 제품은 SK



SKTEL은 PQC 표준 알고리즘과 QKD 시스템을 결합한 'QKD-PQC 하이브리드형 양자암호' 제품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 사진은 SKTEL과 QKD 제품 보유기업인 아이디퀀티크(IDQ) 구성원들이 해당 제품을 테스트하는 모습. /SK텔레콤

T가 자체 개발한 PQC 소프트웨어를 글로벌 양자암호 기업인 아이디퀀티크(IDQ)가 기존 출시한 QKD 시스템에 탑재된다. 이번 제품은 하나의 장비에서 QKD와 PQC 두 개의 암호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암호화'로 네트워크 보안성을 높여준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번 시스템에 적용된 PQC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발표한 PQC 표준을 준수한다. SKTEL에 따르면 QKD와 NIST 표준을 준수하는 PQC가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장비가 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SKTEL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이번 제품 적용을 논의 중이다. SKTEL 관계자는 "해당 양자보안 기술 구축을 통해 중요 공공기관, 지자체의 데이

터 보안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KTEL은 QKD 대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PQC 제품도 함께 선보였다. PQC는 소프트웨어 형태로 기존 네트워크 장비 등에 구축이 가능해 비용 부담이 덜하다

SKTEL 관계자는 "자체 개발 PQC 제품의 출시를 통해 'QKD 단독', 'QKD-PQC 하이브리드', 'PQC 단독'의 양자암호 장비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비용이나 네트워크 환경이 서로 다른 기관 혹은 사업자들이 상황에 맞춰 QKD와 PQC를 적절하게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민용 SKTEL 글로벌솔루션오피스담당(CDO)은 "SKTEL은 현존 최고의 양자암호 기술로 글로벌 시장 선도와 신규사업 개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이 14일 베트남에서 팜 민 쯐(Pham Minh Chinh) 총리를 만나 미래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효성

효성, 조현준 회장 "베트남 경제발전 기여"

조현준 효성 회장이 베트남 총리를 만나 BDO·SAF(Sustainable Aviation Fuel)·데이터센터 등 신규사업 지원에 대해 협력을 요청했다.

15일 효성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1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팜 민 쯐(Pham Minh Chinh) 총리를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는 조 회장을 비롯해 이상운 부회장 등 효성 경영진과 베트남 정부의 팜 민 쯐 총리와 베트남 정부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해 효성이 베트남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존 주력사업과 친환경 첨단 소재인 바이오BDO(부탄다이올), 재생항공연료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데이터센터 등 그룹의 미래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한국과 베트남간 공급망 확보,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경제 전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효성 역시 100년의 미래를 베트남에서 찾기 위해 기존 투자액 이상을 추가 투자해 베트남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한화오션, 세계 최고 해양설비 기술력 선보

'오프쇼어 코리아' 전시회 참가

한화오션이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해양플랜트 전시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설비 관련 기술력을 공개한다.

한화오션은 오는 16~18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해양플랜트 전시회 '오프쇼어 코리아 2024'에 참가해 해양설비 관련 기술력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오프쇼어 코리아는 격년제로 관람객 1만5000명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산업 전시회다. 올해는 전 세계 20개국 200개 기업이 전시회에

참여한다.

한화오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FPSO),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 설비(LNG-FPSO), 해상 풍력발전기 설치선(WTIV), 드릴십 등 총 4종의 해양 제품을 선보인다. 한화오션은 현재까지 모두 8기의 FPSO를 수주해 7기를 인도하고, 1기를 건조 중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FPSO는 하루 최대 22만배럴의 원유와 440만㎡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설비다. /양성운 기자 ysw@

두산에너지빌리티, 750MW 해상풍력 개발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활성화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해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세계적인 풍력발전기 제조사 지멘스가메사(Siemens Gamesa),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Equinor)와 울산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에퀴노르가 울산 지역에서 추진 중인 750MW(메가와

트) 규모의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확정 시, 지멘스가메사의 15MW급 대형 풍력발전기를 도입하고, 핵심 기자재인 나셀을 두산에너지빌리티 창원 풍력공장에서 조립해 공급할 계획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 BG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 회사간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향후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겉호재 기회 잡아라”... 리츠업계, 자본 유동성 확보 ‘총력’

KRX 리츠 TOP 10 지수, 9.31% ↑
금리인하·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유상증자·회사채로 신규자금 조달

금리 인하 기조와 정부의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 업계 활성화 정책 등으로 관련 주가가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상장된 리츠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 청약에 적극 나서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761.61까지 떨어졌던 ‘KRX 리츠 TOP 10 지수’는 이날 약 9.31% 상승한 832.49를 기록했다. 지난 8월 1일 882.03까지 올랐던 때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이달 들어 ‘금리 인하’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소식으로 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리츠시장 활성화 이미지.

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1일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0.25%포인트(p) 내린 연

3.25%로 인하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시행할 방침이다.

이러한 ‘겉호재’로 ▲ESR켄달스퀘어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 ▲롯데리츠 ▲신한알파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 주요 리츠주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리츠 정책 변화와 금리 인하를 통해 리츠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신규 자금을 조달,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SK리츠는 올해 세 차례 회사채를 발행했고, 롯데리츠는 오는 26일 1250억원 규모로 발행을 준비 중이다. 자본 확보를 성공적으로 마친 리츠들도 다수

등장했다. 이달 7~8일 실시됐던 400억원 규모의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1주 청약률은 106%를 기록하며 초과 청약을 달성했고, 500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맥쿼리인프라펀드 역시 110.8%로 완판에 성공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유상증자로 주식 수가 증가해 주당순이익(EPS)이 줄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리츠가 신규 자산을 확보하면 배당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형 리츠들이 적극적으로 자본 유동성을 확보하는 추세”라며 “규제가 풀리고 금리 인하 기조가 뚜렷한 만큼 업계 전반적으로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음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신한투자증권, 허술한 내부통제 ‘속속’... 신뢰도 ‘뚝’

장내 선물 매매·청산서 1300억 손실
김상태 대표 “송구... 비상대책반 가동”
회사채 수요예측·신한스팩 청약 연기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여파가 커지면서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내부망을 통해 임직원에게 사과와 대책 마련 계획을 전했다. 하지만 스펙 상장 당일 철회, 회사채 발행 연장 등 허술한 내부통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김상태 대표이사는 전일 회사 내부망을 통해 “지난주 금요일 공시와 언론을 통해 접하신 충격적인 소식에 대해 최고경영자(CEO)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CEO로서 반성하고 책임을 크게 통감한다. 이제 회사는 본 위기상황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는 데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상대책반’을 공식적으로 가동하겠

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신한투자증권은 금융투자협회 공시를 통해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라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공시에 따르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했고, 과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스왑 거래인 것처럼 허위 등록하며 손실 발생 사실을 감췄다. 사고 발견 일자 는 지난 10일이며, 손실 발생일은 국내 증시가 급락했던 8월 2일부터 10일까지로 예상됐다.

신한투자증권의 금융 사고를 두고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추후 최종 손실 규모와 금융 당국의 제재 수준에 따라 신용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신한투자증권의 손실 규모가 신용도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나 추후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다.

신승환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신한투자증권은 사업기반과 경상적인 이익창출력이 매우 우수함에도 최근 수년간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손실을 비롯한 일회성 손실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신한투자증권의 운영업수익을 살펴보면, 지난해 1분기에는 7224억원을 기록했으나 올해 동기에는 661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신 연구원은 “이번 사고에 따른 최종 손실 인식 규모와 후속 조치 내용, 금융 당국의 제재 수준 등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며 “향후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기조의 변화 여부와 사업기반에 미칠 영향, 비경상적 손실의 재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필요 시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금융당국이 증권업 전반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환경도 감안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전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금

융감독원에 철저한 검사·조사를 주문했으며, 같은 날 금감원은 검사반을 파견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업계 현황 점검을 위해 26개 증권사, 주요 자산운용사 등에 자체 검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윤소정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도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 중 자본규모 5조원을 달성한 이후 자본증가 속도가 정체되고 있다”며 “비우호적인 업무 환경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이번처럼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점은 수익성 개선 노력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 말 자기자본 5조2382억원을 달성한 이후 2023년 말에는 5조3622억원(+2.36%), 올해 6월 기준으로 5조5088억원(+2.73%)을 기록하면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금융 사고는 신한투자증권 내부 통제 미흡으로 평가되면서 김 대표의 거취 이동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신한



신한투자증권 TPE타워 전경 /신한투자증권

투자증권은 전날 예정됐던 회사채 수요예측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회계상 손실 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을 연기했다”고 알렸다.

더불어 지난 10~11일 진행 예정됐던 신한스팩14호 일반 청약도 당일 철회하는 모습을 보여 투자자들의 빈축을 샀다. /신한은 기자 godhe@

경기 불확실성 확대... 금리인하 수혜주·배당주 ‘눈길’

해외주식 Click

엔비디아 등 기술주서 ‘차익 실현’
美 경제지표 등 예정... 변동성 높아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기술주 상승에 베풀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한편 장기채, 배당 관련 ETF 등은 사들이고 있다. 미국 대선,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으로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0월 8~14일) 서학개미는 엔비디아를 4억884만달러어치 순매도했다. 또 엔비디아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2배 따르는 그래닛셰어즈 2배 롱 엔비디아 데

일리 ETF(NVDL)도 1억5563만달러어치를 팔아치웠다.

차세대 반도체 아키텍처인 블랙웰 GPU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는 소식에 엔비디아는 10월 들어서만 거의 14% 급등하는 등 상승 랠리를 보이자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는 ICE 반도체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 ETF(SOXL)도 1억4161만달러어치 매도했다. 이 기간 반도체주가 상승하면서 SOXL은 12.19% 올랐다.

이처럼 기술주에서 이익을 실현한 서학개미는 금리인하 수혜주와 안정적인 배당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학개미는 이 기간 동안 디렉시온 데일리 만기 20년 이상 미 국제 3배 ETF(TMF)를 5188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TMF는 만

기가 20년 이상 남은 미 국제 30년물에 투자하는 것으로, 채권 가격이 상승(금리하락)하면 차익의 3배를 추종한다.

배당 ETF인 ‘슈와브 US 디비던드 에퀴티(SCHD)’에도 2515만 달러가 몰렸다. 슈드는 미국 대표 고배당주 100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 증시 불확실성이 커져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9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중국 실물지표 등 경제지표와 ECB 통화정책회의, 3분기 주요기업 실적발표 예정돼 있어 증시 변동성 높아질 것”이라며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이 예상과 다른 방향을 보일 경우 침체 내러티브 재차 확대될 가능성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미래에셋운용, 美AI빅테크 월배당 ETF 상장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전략 활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미국AI빅테크10타겟데일리 커버드콜 ETF’를 신규 상장한다.

15일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에 따르면 ‘TIGER 미국AI빅테크10타겟데일리 커버드콜 ETF’는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AI빅테크의 성장성을 따라가면서 높은 수준의 분배금을 추구하는 월배당(매달 15일) ETF다. 타겟 커버드콜 전략이란 연간 목표 프리미엄을 타겟으로, 옵션 매도 비중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상승 참여를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을 구사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해당 ETF 처럼 옵션을 매일(데일리) 매도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며 “월간 옵션 매도 방식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TIGER 미국 테크TOP10타겟커버드콜 ETF’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ETF는 옵션 매도 비중을 약 10%로 낮추고, AI빅테크 시장 상승에 약 90% 참여한다.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도 ‘TIGER 미국테크TOP10타겟커버드콜 ETF’에 비해 ‘AI’에 더욱 집중한다. 주가수익성장비율(PEG), 영업이익률(OPM), 평균매출성장률을 기반으로 수익성 높은 AI빅테크 종목만을 선별한다. 이를 통해 AI플랫폼, AI반도체, AI클라우드 3개 섹터의 대표 기업 10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주요 편입 종목으로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있다. 기존 빅테크 ETF가 주로 편입하던 아마존, 테슬라, 어도비, 넷플릭스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허정음 기자

“감굴로 와인을? ‘고정관념’ 깨고, G20 공식 건배주 명성”

Q 르포 | 삼다수 마을 속 ‘제주양조장’ 가보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마을’로도 잘 알려진 이곳에 좋은 물과 제주서 나는 감굴 등으로 와인을 만드는 농업회사법인 ㈜제주양조장이 있다. ‘술익는 마을’이다.

입구에는 ‘1950 제주양조장’이란 글씨가 선명하게 보인다. ‘1950’이란 숫자가 한라산 높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1950’은 한라산 정상 높이인 1950m를 의미하는 게 맞다.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만이 밟을 수 있는 ‘정상’을 의미하는 ‘정상에서 만나다’를 합해 브랜드를 ‘1950 SEE YOU AT THE TOP’이라고 했다.” 입구에서 만난 제주양조장 박종명 대표의 설명이다.

브랜드 네이밍에 ‘정상(THE TOP)’이란 의미를 담은 박 대표의 선견지명은 통했다.

2010년 회사를 설립하고 출시한 와인이 바로 그 해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건배주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제주양조장에서 만드는 와인(화이트와인)은 제주 토종 와인의 대명사가 되다 시피 했다.

와인의 재료는 다름아닌 제주에서 나는 감굴이다. 감굴로 와인을 만든 것은 제주양조장이 처음이다.

“초기엔 감굴로 무슨 와인을 만드느냐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는 게 가장 어려웠다. 껍질을 벗기면 오일 성분

2010년 설립, 그해 G20 건배주로 화이트와인 ‘제주 토종와인’ 대명사 사인머스켓 이용 포도와 와인 개발중

지역원료 100% ‘지역 특산주’ 인정 양조장 증설, 생산량 10배 확대 추진 박종명 “양조장, 지자체 관심 절실”

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포도와 달리 발효가 잘 되지 않는다. 감굴로 와인을 제조하는 기술은 농촌진흥청 감굴연구소가 개발한 것을 이전받았다. 이후로도 농진청이 꾸준히 도움을 줬다. 캐나다 등에 가면 사과와인은 선물로 잘 사오면서 감굴와인은 안된다는 생각을 없애고 싶었다. 정상회담때 건배주로 선택받으며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박 대표의 안내로 실제 와인을 만드는 양조장 내부로 들어가니 코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발효하는 과정에서 나는 술 익는 향기다.

“우리 양조장엔 현재 용량 3399리터(1) 짜리 통(조) 3개가 있다. 이들은 발효조, 숙성조, 제성(알콜 도수·감미도를 맞추는 과정)조로 각각 쓰인다. 이 정도 크기면 국제청 기준으로 농가 보급형 시설에 속한다. 각각의 조 내부는 제주산 참나무로 제작한 오크통이 들어 있다. 지금은 사인머스켓와인을 만들기



제주양조장 입구 전경.

위해 열흘 정도 발효를 하고 있다.”

사인머스켓 역시 현재 제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물을 쓴다. 물론 감굴도 100% 제주산이다.

박 대표는 “포도와인은 반드시 하고 싶었다. 주변 사람들이 감굴와인을 만들면서 포도와인은 왜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젠 제주 감농농협 작목반에 속한 16개 농가에서 사인머스켓을 재배하고 있어 재료 수급도 가능하게 됐다. 맛도 기대가 된다”며 미소를 지었다.

사인머스켓을 이용한 포도와인까지 생산하면 제주양조장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만든 감굴과인 그리고 천혜향와인에 이어 3번째 제품을 내놓게 된다. 와인은 750ml와 80ml 미니어처로 각각 판매하고 있다.

“와인은 현재 전통주와 마찬가지로 라인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다. 지역에서 나오는 원료를 80% 이상 쓰면 ‘지역 특

그는 “지금의 양조장 크기로는 750ml 기준으로 연간 4만병 정도 밖에 생산할 수 없다. 규모의 경제가 되질 않는다. 올해 생산량은 4만7000병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를 위해 들어가는 감굴의 양도 연 40톤(t) 정도다. 4만t 정도는 싸야 뛰가 되도 된다. 그래서 내년엔 양조장을 이전해 증설하려고 한다. 허가도 다 받았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에 산이 아예 끊겨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박 대표는 제주술생산자협동조합 이사장도 함께 맡고 있다.

“제주에는 현재 27개 양조장이 있다. 면적 기준으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조장이 분포해 있는 것 같다. 청년들이 양조장 창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특산주는 지자체의 관심이 절대적이다. 잘 되고 있는 안동소주를 보라. 그런 면에서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아 상당히 아쉽다.”

박 대표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대학에서 파산법을 전공했다.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양조장에서 술을 만들고 있다. 교수님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술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파산법무를 할 때 매각 채권중에 감굴밭이 있었다. 그냥 버려지는 감굴들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다 여기까지 왔다. (미소)” / 제주=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박종명 제주양조장 대표가 감굴로 만든 화이트와인을 설명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산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원료를 100% 사용하고 있다. 제주에 있는 신라면세점이나 호텔, 리조트에서도 우리 와인을 만나볼 수 있다.”

박 대표는 와인 생산량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동시 진행’

중기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홍수 등 비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에
재취업·창업 활동시 실업급여 지원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6개월 연속 적자, 대규모의 홍수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

받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환급한다.

두 제도는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편을 요구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해 불편을 해소하고,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는 향후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1월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동반성장위-롯데百貨, 협력사 ESG지원 협약

상생협력기금 출연, ESG 컨설팅 제공

동반성장위원회와 롯데백화점이 ‘2024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협약을 체결했다.

15일 동반위에서 따르면 4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는 롯데백화점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협력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위해 협력사 ESG 전반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ESG 지표를 선정하고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을 통해 협력사의 ESG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지속가능한 가치를 선보이기 위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KCC “뭉찌빠 댄스챌린지 참여하세요”

아이패드·로보락청소기 등 경품

세상을 바꾸는 ‘컬러의 힘’이 신나고 활력 넘치는 ‘댄스의 힘’과 만났다.

KCC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는 11월 7일까지 컬러풀 뭉찌빠 댄스 챌린지를 진행한다. 컬러풀 뭉찌빠 댄스 챌린지는 댄스 영상을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 (#KCC페인트, #컬러풀챌린지, #뭉찌빠댄스)와 함께 업로드하면 응모가 끝난다.

응모한 영상은 ‘댄스의 완성도’, ‘창의성’, ‘열정’, ‘재미’ 등 심사기준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며 ▲아이패드 에어11 ▲로보락청소기 ▲갤럭시 버즈3 ▲네이버페이 1만원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KCC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CC는 지난달 페인트 유튜브 광고를 통해 장기가가 선보인 시크하면서 중독성 있는 내레이션을 활용해 신나는 비트에 맞춰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따



KCC 컬러풀 뭉찌빠 댄스 챌린지 영상 캡처하면.

라 할 수 있는 뭉찌빠 댄스를 개발했다. 중독성 있고 따라하기 쉬운 ‘뭉찌빠 댄스’가 SNS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가운데 ‘뭉찌빠 댄스’로 고객들이 재미있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승호 기자

관급레미콘 공급 안정화·품질강화 나서

중소레미콘업계, 결의문 채택

중소레미콘업계가 제주에서 ‘2024 레미콘 경영혁신 포럼’을 열고 관급레미콘 공급 안정화 및 품질강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업계 대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대중글래드에서 레미콘경영혁신포럼을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 진행한다. 11회째를 맞은 경영혁신포럼은 레미콘업계를 대표하는 행사로, 올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꿈’을 주제로 최근 어려워진 레미콘업계의 위기를 과거의 경험과 업계의 화합을 토대로 새롭고 가치있는 동행을 통해 극복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포럼에 참가한 중소레미콘업체 대표자 일동은 관급레미콘 공급 안정화와 품질강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관급레미콘의 최우선적 공급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수요기관 불만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배조웅 레미콘조합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부진한 건설경기 속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우리 스스로 품질에 대한 책임과 불신을 신뢰로 바꾸려는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영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 안전관리에도 세심한 관리와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K-스마트팜, 중동시장 공략 시동

UAE·사우디 등서 수출상담 활발

농식품부, 'K-스마트팜' 로드쇼 개최
 韓 기업 12개사 369건 수출상담 진행
 바이어 위한 수직농장 솔루션 등 소개

정부가 중동 주요국에서 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해, 수직농장 등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서아시아 수출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중동지역 국가들은 열악한 기후환경을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이루기 위한 방책으로, 스마트팜 도입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UAE에서는 중동 최대 규모의 농업 박람회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농업 전시회(AgraME)' 행사장에 최초로 한국관을 조성했다. 사우디와 쿠웨이트에서는 비즈니스 포럼과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스마트팜 기술을 소개하고 향후 수출계약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는 국내 스마트팜 기업 12개사와 현지 바이어 50여개사 간 369건의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농심, 도화엔지니어링, 미드바르, 이수화학, 천리팜, 케이에스씨, 팜인테크, 포미트, 한국수안, 한보일렉트, 효신, CJ제일제당 등 우리 기업 12곳이다.

이번 로드쇼에는 농심·미드바르 등 기존 중동 수출 경험을 보유한 기업들도 참여했다. 일찍이 오만에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을 수출하고 현재까지 중동지역에만 3건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농심은 기존 바이어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새로운 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농업전시회'에 조성된 한국관의 모습. /농식품부

아이어들을 발굴했다. 또 미르바르는 지난해 개최된 K-스마트팜 로드쇼에서 UAE 기업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드바르는 추가 성과를 위해 소비자 전자전시회(CES)2024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에어팜' 기술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공기 중 수분을 활용하여 물 사용량을 절감하는 에어팜 기술에 중동 바이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행사 관계자는 밝혔다.

CJ제일제당과 도화엔지니어링 등 중동 스마트팜 진출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들도 합류했다. CJ제일제당은 자사가 개발한 수직농장 솔루션을 중동 바이어들에게 소개했다. 또 건설업체로서, 신사업으로 스마트팜을 추진 중인 도화엔지니어링은 농식품부 로드쇼에 처음 참가해 자사의 강점인 수처리기술 및 중동에서의 경험 등을 소개했다.

한편 현지 정부기관들도 로드쇼에 함께 참여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물환경농업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ESTI

DAMAH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사우디 내 주요 스마트팜 프로젝트 추진 동향을 발표하고,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쿠웨이트 농수산청은 국내기업과 직접 수출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쿠웨이트 농수산청 관계자는 "한국 스마트팜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에서 수직농장 등 첨단 농업분야의 우수한 경쟁력을 증명했다"며 "이번 로드쇼에서 뛰어난 한국기업을 발굴하여 쿠웨이트와도 협력을 강화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K-스마트팜의 중동 진출은 아직 시작단계로, 민간의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계속된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 내 시범온실 조성, 카타르와의 스마트팜 협력위원회 운영 등 중동과 활발히 정부 간(G2G)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진출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전국 20개 전시회 연계... 수출 범업 행사

산업부·KOTRA, 2주간 전시장 운영

미국·유럽·중국 등 62개국 1000여개사 바이어와 국내 첨단산업·소부장·바이오의료 등 수출 유망기업 3000개사가 2주간 전국 전시장에서 만나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지역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한 K-수출 마케팅과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6~31일까지 2주간 해외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수출 범업코리아 Week'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출 범업코리아는 그간 단일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20개 산업전시회, 문화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행사는 16일 부산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를 시작으로 서울(한국전자전, 반도체전), 대구(미래모빌리티엑스포), 일산(로보월드, 국제건설기계전) 등 전국 각지의 전시장에서 국내 우수기업들이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제

품과 기술력을 선보인다.

행사 주제, 범위,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KOTRA가 중심이 돼 수도권 위주 상담회만 개최했으나, 이번부터는 코엑스, 벅스코, 킨텍스, 엑스코 등 전국 주요 전시장과 전시회 운영사, 지자체, 관광공사 등 다양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며 마케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사에는 국내기업 3000여개사와 바이어 1000여개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수출 마케팅을 위해 참여기관이 원팀으로 협업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KOTRA 해외 무역관이 제품 소싱수요가 있는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면, 전국 전시회가 협업해 국내 유관 제품과 매칭 후 비즈니스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요 전시장은 연계 홍보 및 전시장 간 차량 배치를 지원한다. 문체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지역 전시회와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모든 방한 바이어들에게는 숙박·식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관광 바우처를 지급하고 다양한 현장 방문과 관광코스 참관도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가라앉지 않는 쌀가루로 새 가공식품 개발

농진청, 음료·소스용 쌀가루 개발

농촌진흥청은 15일 쌀가루를 물에 풀어도 가라앉지 않고 고루 섞이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가라앉지 않는 쌀가루는 일반 쌀가루를 물과 섞어 가열해 익힌 뒤 초음파를 처리하고 다시 건조해 분말로 만들면 완성된다. 초음파 처리로 쌀가루 입자크기가 작아진 데다, 분자 구조가 바뀌어 점도가 낮아지고 물과의 결합력은 높아져 물에 풀어도 가라앉지 않는다.

이 쌀가루는 기존 쌀가루보다 점도는 3% 수준으로 낮고, 가열하지 않고도 즉석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물에 가라앉지 않아 음료, 양념, 미용제품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진청은 예상했다. 쌀가루 음료 제조업체에서 이 기술을 적용하면, 유통제나 안정제를 따로 첨가하지 않아도 음료가 증

을 이루지 않고 고루 잘 섞여 품질이나 유통성 등이 좋아질 것이라 전망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Ultrasonics Sonochemistry* (IF=8.4)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특허출원도 완료됐다. 연구진은 물에 가라앉지 않는 쌀가루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연속식 초음파 공정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처리 시간은 줄고 생산 효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쌀가루는 2018년 3만7132톤(t)에서 2022년 5만4446t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떡(27%)이나 술(25%)에 활용되고 있다. 쌀가루는 물에 쉽게 가라앉고, 가열했을 때 점도가 높아지면서 떡처럼 뭉쳐지는 성질 때문에 가공성이 떨어져 음료나 양념(소스) 등 액상 제품에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물순환 관리 강화로 기후위기 대응 박차

환경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추진
 물재해 맞춤형 관리·방재 대책 수립
 물순환 촉진 구역 지정 기준 세분화

정부는 기후 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 기본 방침을 구체화했다. 매년 물순환 촉진 종합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물순환 촉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평가 항목과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안전한 물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순환은 비나 눈이 지표수나 지하수가 돼 하천, 호수, 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비나 눈이 되는 연속적 흐름이다.

이번 시행령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 분야별 시책·사업 현황 및 전망, 실태조사, 국토·산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방안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법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도 농업생산 기반시설, 친수시설 등 물순환 관련 시설을 추가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취

약성 평가는 개별 물순환 취약성 또는 종합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개별 물순환 취약성은 물순환 왜곡도 및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 취약성을 5등급으로 평가하며, 1등급(가장 취약)이 1개 이상인 지역이다. 종합 물순환 취약성은 개별 물순환 취약성 평가 점수를 평균해 5등급으로 분류하며, 1등급(가장 취약), 2등급인 지역이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촉진종합계획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총괄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종합 계획 수립 시 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해 물순환 촉진구역의 하천·수자원·물순환 시설 현황, 물순환 취약성 평가결과 등을 추가했다. 매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전문대에 바이오 인재 양성모델 전국 확산

폴리텍대학 4개 전문대학과 협약

한국폴리텍대학이 산업 수요에맞춘 바이오 인재 양성 모델을 지역 전문대학으로 확산한다.

폴리텍대학은 15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 및 동양미래대, 유한대, 인하공업전문대, 재능대 등 4개 전문대학과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폴리텍대학이 롯데바이오로직스와 공동 개발해 운영 중인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롯데반)을 지역 대학에 확산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산업과 기업 경쟁

력 강화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폴리텍대학과 4개 전문대학은 ▲롯데반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업 요구에 따른 수준별 기술 인재 양성 ▲대학 시설·장비를 활용한 기술 지원 및 공동 연구 활성화 ▲기업 임직원의 산학겸임교원 위촉·활용 등을 맡는다.

폴리텍대학은 롯데반 커리큘럼의 핵심인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과 품질관리(QC), 품질보증(QA), 검증(validation) 실습에 필요한 교육장비와 시설을 전문대학에 개방한다.

양 기관은 맞춤형 인재 양성과 교육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2

2024 제약 · 바이오 포럼

2024. 10. 23 (수)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명 : 2024제약&바이오포럼
 - 일시 : 2024년 10월 23일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제 :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 강연 :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기조강연)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
 최진식 그라스메디 대표이사
 이진환 지엔티파마 박사
 경현태 아우라케어 대표이사
 유성지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 대표
 임운지 VIP동물의료센터 암센터원장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4 제약 · 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부산 제조업, 경기 전망 '빨간불'... 불안정 경영환경 지속

부산상공회의소, 250개사 대상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조사 BSI 81 기록... 6분기 연속 부진



부산상의 전경.

고금리·고물가 및 내수 부진 장기화와 중동정세 불안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무색해지면서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6분기 연속 경기 부진이 전망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 제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는 '81'을 기록했다. 6분기 연속 경기부진 전망이 이어졌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수출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정한 대내외 경영환경이 4분기에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준치(100)를 하회한 것으로 보인다.

BSI는 기준치 '100' 이상이면 경기호전을,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형태별로는 수출기업 '98' 내수기업은 '76'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 여파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4분기에는 수출기업 대비 내수기업의 경기가 더욱 어려워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국제유가가 하락, 합성고무 및 도로 수요가 증가한 화학·고무(115)와 친환경 선박 수요증가 및 조선업 호황에 힘입은 조선·기자재(100)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경기 부

진이 예상된다. 신발(67), 의복·모피(67), 음식료품(60) 등 소비재 업종은 원자재가 상승과 물류비 증가,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이 겹치면서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기·전자(95)는 AI 등 신산업 투자증가에 따른 3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요 둔화와 환율 변동 등에 우려를 표하며 4분기 약보합을 전망했다.

경영부문별로는 매출(82), 영업이

익(83), 설비투자(90), 자금사정(90) 등 조사 전 부문에서 지수가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연초 계획한 목표실적을 달성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52.0%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47.6%)에 비해 4.4%p 증가한 것으로 유가 및 원자재가 변동, 금리인하 지연 등 경영환경에 부정적 요인들이 지역기업의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부각 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67.2%가 '큰 영향 없다'고 응답했다. 일시적 실적저하(20.4%)와 경쟁력저하(9.2%)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들도 31.2%에 달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환율 변동 등 금융리스크(24.7%), 에너지 조달비용 증가(22.6%), 원자재수급(18.3%), 재고 관리 및 물류비 증가(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완도군

글로벌 해양치유 도시로 도약

완도군이 새로 개발한 도시 브랜드인 '해양치유 완도' 선포식을 갖고 세계를 치유하는 도시로 비상한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과 치유의 섬 조성 전략, 해양바이오산업, 국립난대수목원 등 국책 및 SOC 사업, 대규모 축제·행사 등 군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적극 홍보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인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해양치유산업의 대표 브랜드가 우리나라의 치유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전남도

김수출 1兆 시대 '김밥 페스티벌'

전남도가 김 수출 1조원 시대를 맞아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전남 세계 김밥 페스티벌'을 연다.

전남도는 김 관련 축제를 통해 K-김의 80%인 전남산 김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여 김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전남산 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마른김 품질등급제와 국내·외 바이어가 전남에서 좋은 김을 구입토록 운영하게 될 국제 마른김거래소 시행에 앞서 전남산 김의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하동군

농촌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

하동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 지역에서 읍내순환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15일 시범 운행한다.

하동읍 주민들은 병원, 시장, 관공서 등을 방문하기 위해 긴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이에 교통수단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자율주행 버스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이 됐다.

군은 지난 1년여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컨설팅을 받으며 총 20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차고지와 승강장, 스마트폴, 안전시설 등을 구축하고 농촌 지역에 맞는 집간을 겸비한 자율주행차 제작을 통해 시범 지구 운영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

UN평화축제, 오는 19일 개막

부산 남구는 오는 19~20일 평화공원 일원에서 'UN평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기억의 미래, 평화를 수놓다'를 슬로건으로 기억, 공감, 화합을 테마로 한 3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첫날(19일) 오후 2시30분부터 평화공원 도로에서는 유엔 참전국 기수단, 군악대, 외국인 공연팀, 다문화가족팀, 태권도, K팝 댄스팀 등 평화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가수 이찬원, 이상밴드 등이 출연하는 평화콘서트가 열린다.

부산=이도식 기자

강진군, 外人 계절근로자 이탈율 0%

국제우호도시 베트남 품협현과 오랜 기간 교류·협력 큰 영향 안정적 근무환경 위한 지원책 마련

강진군이 올해 추진한 공공형 베트남 계절근로자 시책이 순항하고 있다. 강진군은 공공형 20명, 농가형 결핵이민자 가족 7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이탈율이 0%라고 밝혔다.

이런 성과는 강진군과 국제 우호도시인 베트남 품협현과의 지난 10년간에 걸친 오랜 기간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류·협력이 가장 큰 바탕이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체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번기 동안 일손이 부족한 강진군의 농업 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강진군은 지난해 3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는 베트남 품협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 4월 20명의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안착을 위해 입·출국 교통비와 통역비를 지원하고 2동의 주거 공간을 제공했다. 이들은 5개월간의 정식 인력계약을 맺었고 대다수는 3개월의 추가 작업을 확정 짓고 내달 22일까지 농작업에 임한다.

군은 지난 베트남 품협현 양해각서(MOU) 체결과 재입국 추천 제도, 성실 근로자에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내년도 계절근로자 고용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고흥군, 우주항공 중심도시 위상 알린다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참가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와 엑스포과학공원 등에서 열리는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참가해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린다.

고흥군은 이번 행사에서 전국 최초로 양성한 우주항공해설사들과 함께 매년 5월에 열리는 고흥우주항공축제를 홍보하고, 실제 우주에서 사용되는 우주인 용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객들이 우주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소유즈 우주선의 외피, 우주식량, 우주유영장비, 비상 생존장비 등 국내 어느 박물관에서도 볼 수 없는 실제 우주 장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했다. 8개의 존으로 구성된 전시에서는 30종이 넘는 우주 물품들을 만나 볼 수 있으며, 우주항공해설사들이 체험 진행을 맡는다. 고흥우주항공해설사들은 방문객들에게 우주와 항공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며, 실제 우주항공 관련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우주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순천대 글로벌대학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이 10일 순천대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참석자들과 강소지역기업 육성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 합의

지역갈등 해소 등 '가장 이상적 대안'

'의과대학 불모지' 전남의 30여 년 숙원사업인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해 교육부와 전남도, 목포대, 순천대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통합의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26학년도 첫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 지역갈등 해소 등에 '통합의대'가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해당사자 간 합의로, 통합의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 이병운 순천대 총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지난 10일 순천대 글로벌대학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에 앞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전남 국립통합의대 추진에 뜻을 같이했다.

이 부총리는 1도(道) 1국립대 취지를 설명하며 양대학에 협조를 요청한 뒤 "대학 통합은 엄격한 의미가 아닌 느슨한 형태의 통합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광주·전남 미성년자 주택매입 '96채' 확인

6년간 매수금액 100억4600만원



는 43채, 61억5600만원이며 전남은 53채, 38억9000만원이었다.

전국적으로는 ▲1순위 경기도 968채 ▲2순위 서울 709채 ▲3순위 인천 294채 ▲4순위 부산 175채 ▲5순위 충남 156건채 이었다.

이 중 최다 매수자는 10대 미만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5채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의원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최근 6년간 전국적으로 '부모 찬스'가 의심되는 미성년자 주택 매입이 3000채를 넘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은 96채로, 매수금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들은 주택 3243채를 구매, 그 금액이 5844억원으로 확인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같은 기간 미성년자들이 96채를 구매, 금액이 100억 4600만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광주

아동복지 힘쓰고, 지구온난화에 경각심 ‘사회공헌 구슬땀’

기업들 각양각색 ESG 활동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들에 ESG공시가 의무화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들이 ESG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가운데 스타트업들도 ESG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어 업계 이목이 쏠린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주식회사 바하가 운영하는 PR 전략 스튜디오 ‘바다와하늘처럼’과 초록우산이 혁신적인 ESG 홍보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초록우산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ESG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초록우산은 1948년부터 어린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언제나 어린이 곁에서 함께하는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 76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국내외의 70여 개의 직영 기관과 1000개 이상의 협력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아동의 권리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스타트업 PR과 언론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바다와하늘처럼의 노하우를 활용해 초기 스타트업도 적극적으로 ESG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주요



바다와하늘처럼의 유지는 이사·이우람 대표,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본부 김이영 팀장이 ESG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바다와하늘처럼



시그니엘부산 임직원들과 한국헌혈견협회 회원 및 해운대구청 임직원 등이 펫 플로깅 행사에 참여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호텔앤리조트

바다와하늘처럼-초록우산 ‘맞손’ 대·중기·스타트업 ESG 참여 기회

IFC몰 생물 다양성 보존 캠페인 SNS 활용 환경보호 실천 이벤트

시그니엘 부산 펫 플로깅 등 반려동물 동반 ESG프로그램 마련

협력 내용으로는 ▲기업 규모에 맞춘 맞춤형 ESG 활동 기획 및 홍보 전략 수립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위한 효율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초록우산의 다양한 아동복지 사업과 기업 ESG 활동의 연계 ▲참여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참여 기업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으며, 후원 규모에 따라 훈장 및 표창 수여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또한 ESG 활동 참여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직원들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로 인한 만족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초록우산의 전문성을 활용해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신정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본부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아동복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의 참여로 더욱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아동복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IFC몰도 색다른 ESG캠페인을 개최했다. IFC몰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생물 다양성 보

존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중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동물 캐릭터를 활용한 그래픽 캠페인 형태로 진행된다. 팔색조, 흰수염고래, 붉은여우, 북극곰 등 멸종위기 동물을 활용한 캐릭터를 제작해 각 캐릭터별 환경보호 실천 스토리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보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위해 이달 27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환경보호 실천 동참 이벤트도 진행한다. IFC몰 방문 후 멸종위기 동물 캐릭터 인증샷을 촬영해 환경보호 실천 다짐글과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IFC몰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IFC몰 관계자는 “다양한 기후변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이번 캠페

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그니엘부산은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ESG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펫 플로깅, 업사이클링 펫 굿즈 캠페인 등이다.

시그니엘부산은 지난 11일 한국헌혈견협회, 해운대 구청과 함께 반려동물과 산책하며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펫 플로깅을 진행했다. 해운대 일대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펫 플로깅에는 시그니엘 부산 임직원, 한국헌혈견협회 소속 회원과 헌혈견, 해운대 구청 임직원 등이 동참했다.

한국헌혈견협회는 반려견 헌혈 문화 정착과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시그니엘부산은 펫 플로깅에 참여한 헌혈견들을 위해 업사이클링 굿즈 제작 업체 ‘드림행거’, 일러스트 작가 ‘스텔라박’과 함께 만든 헌혈견 커스텀 패브릭 키링과 업사이클링 반려견 산책 가방을 제공했다.

시그니엘부산 관계자는 “헌혈 동물을 보호하고 반려견 헌혈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펫 플로깅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반려견 동반 투숙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들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파리바게뜨, 캐나다에 글로벌 600호점 오픈

SPC, 토론토에 ‘블루어 스트리트점’ 연내 북미에 20여개 점포 추가 계획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캐나다 토론토에 ‘블루어 스트리트(Bloor Street)점’을 열어 글로벌 600호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500호점을 달성한 지 1년 만으로,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적극적인 글로벌 경영에 따른 성과다.

파리바게뜨는 최근 태국·브루나이·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에 추가로 진출 계약을 맺기도 했으며, 올해 연말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글로벌 할랄

인증 공장 건립을 앞두고 있는 등 글로벌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글로벌 600호점은 파리바게뜨 글로벌 사업의 핵심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달성돼 더욱 의미가 있다. 파리바게뜨의 북미 사업은 순항 궤도에 올라 올해만 현재까지 30개의 점포를 열어 190여개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0여개 점포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북미 사업 확대 추세에 맞춰 지난 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가맹점 대상 대규모 행사인 ‘2024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컨벤션’을 개최하기도 했다.

파리바게뜨의 이러한 성과에 대해

현지 매체들도 관심을 갖고 조명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미 프랜차이즈 전문지인 ‘프랜차이즈 타임즈’에서 발표하는 ‘프랜차이즈 기업 톱 400’에서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보다 한 단계 오른 39위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파리바게뜨의 캐나다 7호점이자 직영 플래그십 매장으로 문을 연 ‘블루어 스트리트점’은 230㎡, 30석 규모로 토론토 최중심 상권인 요크빌 블루어 스트리트에 자리잡았다. 명품 패션 브랜드 매장과 특급호텔,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한 상권의 특색과 어우러지도록 짙은 갈색



파리바게뜨가 캐나다에 글로벌 600호점을 오픈했다. /SPC

톤의 파사드(매장의 입면)로 매장 전면을 꾸몄으며, 목재를 적극 활용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적용해 고급 부티크 스타일로 연출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비맥주 ‘환상거품’ 한맥 신규광고 공개

오비맥주의 프리미엄 라거 브랜드 한맥이 생맥주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생(生)’의 독특함을 조명한 신규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15일부터 TV와 온라인을 통해 방영하는 이번 신규 광고는 모델보다 제품의 품질과 특성에 초점을 맞춰 한맥만의 ‘환상거품 리추얼’을 감각적으로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영상은 바텐더가 손님에게 생맥주 거품이 풍성하게 차오를 때까지 잠시 기다려 달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기다린 만큼 올라가는 환상거품으로 가능한 더 부드럽게’라는 메시지와 함께, 최상 품질의 생맥주 한 잔을 만끽하는 순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며 영상은 마무리된다.

한맥은 광고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인기 유튜브와의 협업, 소비자 대상 시음 행사 등을 통해 ‘환상거품 리추얼’ 홍보용 콘텐츠들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한맥은 환상거품 리추얼을 활용한 소비자 대상 이벤트도 연다. 전국 한맥 판매 업장과 연계해 한맥의 독특한 생맥주 리추얼을 직접 촬영하여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굿즈 등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한다. 오는 18일에는 갤러리아 백화점 광고점에서 소비자 대상 시음 이벤트도 열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고메 소바바치킨’ 누적매출 1000억 돌파 스타필드 하남에 ‘스위치 투 카누’ 팝업

CJ제일제당, 출시 1년6개월 성과

CJ제일제당 ‘고메 소바바치킨’이 기존 냉동치킨과는 차별화된 맛과 품질로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고메 소바바치킨’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4월 ‘소이허니’ 출시 후 1년 6개월만으로, 올해 3월 후속작으로 선보인 ‘양념’ 매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더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

‘고메 소바바치킨’은 CJ제일제당이

독자개발한 ‘소스코팅’ 기술을 적용해 냉동치킨 특유의 눅눅함을 없애고 전문점 수준의 갓 튀긴 듯한 바삭함을 구현한 제품이다.

특히 간장 특제소스를 입힌 ‘소이허니’는 외식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단짠’의 조화로운 맛을 제대로 구현하면서 너겟과 후라이드 치킨 중심이었던 국내 냉동치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가성비 트렌드 속에서 ‘전문점 못지 않은 맛 품질’로 입소문을 타면서 출시 초기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신원선 기자

동서식품, 17일~27일 운영

동서식품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1층 센트럴 아트리움에서 ‘스위치 투 카누(SWITCH TO KANU)’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스위치 투 카누’ 팝업스토어는 ‘카누 호환캡슐로 새로운 커피 취향을 발견해보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에 마시던 커피와 차별하고 카누 캡슐로 환승해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리셉션’, ‘작별

존’, ‘탐색존’, ‘자관기준’, ‘시음존’ 등 테마에 맞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먼저 다 쓴 커피 캡슐을 지참한 방문객들은 VIP로서 ‘리셉션’으로 입장하게 된다. 입장 시 가지고 온 캡슐의 무게에 따라 카누 캡슐 웰컴키트, 캡슐 디스펜서, 머그컵 등 다양한 선물로 교환할 수 있는 VIP 티켓을 증정한다.

이어지는 ‘작별존’에서는 기존에 마시던 커피와 차별하게 된 이유와 카누 호환캡슐로 환승하려는 이유를 고르면 카누 캡슐 교환용 코인과 시음용 코인을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국내 제약업계, 신약·기술수출 밀어주며 자회사 IPO 속도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 성장 가속
이문은시아 면역항암제로 재도전
동국생명과학 세계 이미징 기업 도약

국내 대표 제약 기업들의 자회사들이 파이프라인 구축, 신약 발매 등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하면서 기업공개(IPO)에도 잇따라 도전하고 있다.

15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 자회사 이문은시아는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이문은시아는 앞서 지난 4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 예비심사 청구 자격을 갖추는 등 코스닥 상장에 거듭 도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전문 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A, BBB등급을 획득했는데,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일정 등급 이상을 획득하지 못해 상장 추진이 미뤄지기도 했다.

이문은시아는 지난 2016년 9월 유한양행과 미국 소론포테라퓨틱스가 합작해 설립한 면역항암제 개발 전문기업이다. 이문은시아는 체내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T세포와 대식세포를 표적하는 핵심 기술을 활용해 국내 최초 면역관문억제제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문은시아는 모든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 '계열 내 최고 신약'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핵심 파이프라인으로는 IMC



동국생명과학 안성공장 전경.

/동국생명과학

-001, IMC-002, IMC-003 등을 구축했다.

특히 IMC-001은 PD-L1 항체로, 암세포 표면의 'PD-L1'이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PD-1'과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문은시아는 NK/T세포 림프종을 비롯해 희귀암 중심으로 IMC-001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을 진행 중이다.

CD47 항체 치료제 후보물질인 IMC-002는 고형암 임상1a상에서 높은 안정성을 나타내 이문은시아는 지난 6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24)'에서 해당 임상 결과를 공개했다. 또 지난 2021년에는 중국 3D메디슨과 총 4억7050만달러 규모의 'IMC-002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초기 임상단계에서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왔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제37호 국산 신약 '자규보정'을 개발한 온코네티라퓨틱스도 최근 올해 안에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 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을 거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승인받았다는 행보다. 상장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지난 2020년 5월 제일약품의 신약 전문 자회사로 설립됐다. 이후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37호 국산 신약 '자규보정'을 허가받았고, 후속 신약 후보물질로 파프-탄키라제 이중저해 표적항암제 '네수파립'을 개발하는 등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자규보정은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 이달 1일부터 국내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국내외 제약업계에서 새로운 블록버스터 후보로 주목받는 상황이다. 중국, 인도, 멕시코 등 해외 현지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수출 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자규보정이 기술수출로 진출한 국가는 총 21개국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온코네티라퓨틱스가 최종 코스닥에 상장되면 기술특례상장 기업 가운데 신약 허가에 이어 해당 신약 매출을 확보한 상태로 상장되는 첫 사례가 된다.

동국제약은 자회사 동국생명과학을 글로벌 종합 이미징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초석을 닦았다. 동국생명과학은 지난 8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상장위원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신규상장(IPO)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공동 주관사는 KB증권이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동국생명과학의 주요 제품인 엑스레이 조영제 '파미레이', MRI 조영제 '유니레이' 등은 국내 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25여 국가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 동국생명과학은 초음파, 이동형 CT, 유방촬영기 등 영상 진단 장비 등으로 의료기기 시장에서도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실제로 동국생명과학은 올해 상반기 67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는 연간 매출액 1202억원, 영업이익 85억원을 기록했는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 36.9% 증가한 규모다.

동국제약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영상 진단 의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조영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정조준해, 동국생명과학의 기업 가치를 높여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광동과천타워' 조감도.

/광동제약

광동제약, 61주년 맞아 '과천타워'로 본사 이전

광동제약은 61번째 창립기념일에 맞춰 '광동과천타워'로 본사를 이전했다고 15일 밝혔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기존 서초동과 구로동에 각각 소재했던 광동제약 본사와 R&D연구소가 과천 신사옥으로 통합됐다. 광동제약은 부서 간 업무 교류와 소통을 확대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광동과천타워는 경기 과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지상 15층, 지하 6층으로 조성된 연면적 7071평 규모의 스마트 오피스다.

출입문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로비는 1~3층을 연결한 구조로 개방감을 갖췄다. 1층부터 4층까지는 내외부 소통 공간으로 광동제약 역사관, 카페테리아, 캐주얼 라운지, 접견실 등이 설치돼 임직원뿐 아니라 방문객도 편안하게 이용 가능하다. 5층부터는 업무 공간으로 본사 각 부서와 R&D연구소가 위치한다.

특히 광동제약은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구축함에 따라 자율좌석제,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 운영한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고혈압 등 6개 품목 개량·복합신약 개발

항고혈압 등 신약 임상 3상 진행 중
저용량 3제 복합제 HCP1803 개발

한미약품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근골격계 등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6개 품목의 개량·복합신약들이 임상 1~3상 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15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의약품들을 끊임 없이 출시하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한미약품은 국내 최초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인 'HCP1803'을 개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발 중이다. 현재 국내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 임상 종료 시점은 오는 2025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한미약품은 앞서 지난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고혈압학회(ESH)에서는 HCP1803 기반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는데, 해당 연구는 저용량의 3가지 항고혈압 성분을 병용한 요법이 고혈압 초기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미약품은 HCP1803을 통해 여러 병리학적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최근 부가가치가

높은 개량·복합신약 신제품을 계속 선보여왔다. 지난 2023년 9월 당뇨병 치료제 '실디파'에 이어 올해 2월 항혈전 치료제 '라스피린'을 출시했다. 이어 여러 용량과 다양한 조합으로 '패밀리 제품군'을 지속 확장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일찍이 항암 분야 바이오 신약 '롤론티스'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도 입증한 바 있다. 롤론티스는 '롤베돈'이란 브랜드명으로 미국 의약품 시장에 진출해 매 분기 200억원대 매출 성과를 거뒀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자체 세포주 개발 플랫폼 공개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간을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세포주(Cell Line) 개발 플랫폼 'HI-CHO CLD(Cell Line Development)'를 처음 공개했다.

셀트리온은 15일 열린 '썬도 피셔 사이언티픽 컨퍼런스'에서 '고성능 세포주 개발'을 주제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규 세포주 개발 플랫폼 'HI-CHO'가 가진 특징점과 해당 플랫폼의 향후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세포주는 세포의 지속적 증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세포 집합체'를 뜻하며, 치료제의 원료인 재조합 항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에 공개된 HI-CHO CLD는 새로운 CHO(Chinese Hamster Ovary) 숙주 세포주(Host Cell Line)와 자체 발현 벡터(Vector)로 구성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대상웰라이프, 영유아 시장 경쟁력 강화

대상웰라이프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UCK파트너스와 개인창업주 2인으로부터 에프앤디넷의 지분 90%를 인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국내외 성장가능성이 큰 산모 및 영유아 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상웰라이프가 인수한 에프앤디넷은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보유한 건강기능식품 기업으로,

특히 국내 분만병원 채널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대상웰라이프는 기존 자사 건강기능식품 라인업에 더해 에프앤디넷의 ▲병원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에디션'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더팜' 등을 확보했다. 또한 각 유통 채널을 아우르며 소비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빙그레 "헤이즐넛 쿠키로 바삭"

플레도르 '피스타치오앤초코' 출시

빙그레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플레도르의 신제품 '플레도르 피스타치오앤초코'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플레도르 피스타치오앤초코는 초콜릿과 피스타치오가 조화를 이루는 스틱마 제품으로 초콜릿과 헤이즐넛 쿠키가 어우러져 바삭한 식감과 달콤한 풍미를 즐길 수 있다.

특히 국내산 원유를 사용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의 진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플레도르 피스타치오앤초코는 편의점, 일반 소매점 등 전국 유통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가격은 편의점 기준 3000원이다.

한편 빙그레의 대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플레도르는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쿠키 앤 크림'·'쿠키 앤 초코'·'베리 믹스' 등 색다른 스틱마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제13회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10. 18.(금) - 10. 22.(화) / 5일간
잠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통합의학 메카 장흥!
건강한 삶의 장을 열다.



주최



전라남도
JeollaNamdo



장흥군
Jangheung County

주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



문의처 |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추진위원회



061-860-6263, 6266



금호석유화학, 힌지팜이 제작 후원금 전달

금호석유화학은 '힌지팜의 날'을 맞아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구 힌지팜을 전달하는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KBI그룹, 경주지역 인재육성·교육발전 지원

KBI그룹이 경주지역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15일 KBI그룹에 따르면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오른쪽)은 지난 14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지역출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대목동병원, '김옥길을 헌판 보존 기념식' 개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지난 14일 이대목동병원 김옥길 흉에서 '개원 31주년 기념식&김옥길을 헌판 보존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 4분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4일 전주 본점 3층 중회의실에서 4분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KT&G 상상마당

'상상실현페스티벌 부산' 개최

KT&G 상상마당이 아티스트를 꿈꾸는 대학생의 성장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 상상실현페스티벌 부산 with 상상유니브'를 개최한다.

LG전자, '세계 식량의 날' 캠페인 영상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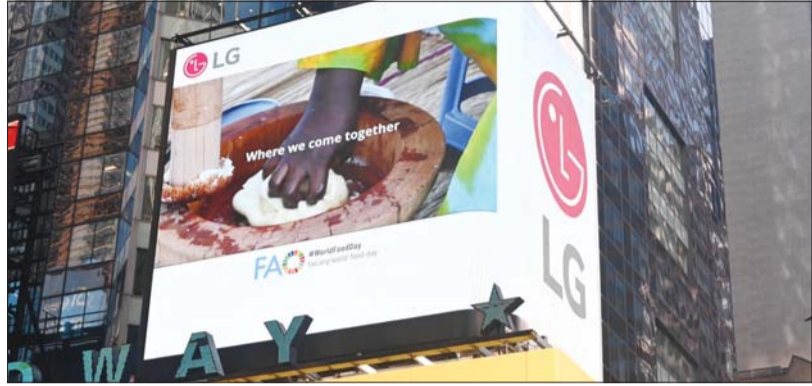
기아극복 메시지 전파... '모두의 더 나은 삶' 현실로

美·英 주요 옥외전광판 상영 배고프지 않을 권리 강조

LG전자가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글로벌 기아문제 해결에 힘을 보탠다.

LG전자는 10일(현지시간)부터 24일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광장 옥외전광판에서 세계 식량의 날을 기념한 캠페인 영상을 상영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활동은 LG전자의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 'LG 희망스크린'의 일환이다. 'LG 희망스크린'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뉴욕과 런던에 있는 LG전자 전광판에서 국제기구와 NGO(비정부기구)의 공익 영상을 상영해 환경 보호, 재해 구호, 유엔총회 등을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한 식량권' 영상이 상영되는 모습. /LG전자

한편, LG전자는 세계 곳곳에서 배고프지 않을 권리를 위한 활동을 펼치며 ESG 비전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인도 법인에서는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해 청소년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는 '라이프스굿 영양 식단' 캠페인

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나이지리아 '행복의 온기' ▲멕시코 '길거리 아침식사 기부' ▲인도네시아 'LG 러브스 앤 케어스' ▲이탈리아 '식사 소포 배달' 등 다양한 국가에서 현지 상황에 맞는 취약계층 대상 식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태균 동탑산업훈장·김윤선 산업포장 수상

<한국전력공사 기술혁신본부장>

<삼성전자 마스터>

산자부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안덕근 장관 '국제표준 개발 속도'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열고 표준화를 통해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총 40점의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포상 수여식에서는 27년간 전력망 기술 표준화에 매진해 온 한국전력공사 김태균 기술혁신본부장이 차세대 전력망 기술 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공로 등으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김태균 한국전력공사 기술혁신본부장



김윤선 삼성전자 마스터

진행할 과제로 김 본부장이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을 채택했다.

또 삼성전자 김윤선 마스터는 25년간 이동통신 분야 국제표준화에 기여한 공로로, 특히 5G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

해 "미래시장을 지배할 첨단기술의 주도권 경쟁의 핵심은 표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국제표준 개발 속도를 올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세계 표준의 날을 시작으로 표준화 성과를 공유하는 '표준 주간'을 이날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표준 주간에는 ▲사이프스 코리아 포럼 총회 ▲참조표준 사업화 우수성과 발표회 ▲R&D-표준 연계 우수성과 발표회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성과 발표회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국민투표 등이 진행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정승렬 "경계없는 교육생태계 선도"

<국민대 총장>

국민대 개교 78주년 기념식

정 총장 등 내외빈 300여명 참석

정승렬 국민대학교 총장이 개교 78년을 맞아 학문적 연구를 선도하고 미래담론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대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국민대는 지난 14일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열린 '개교 78주년 기념식'에서 정 총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승렬 총장은 "임시정부 주축이었던 해공 신익희 선생이 최초로 설립하신 이래, 성곡김성곤 선생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꾸준히 발전의 역사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를 수 있었



국민대가 지난 14일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개최한 '개교 78주년 기념식'에서 정승렬 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대

다"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각 분야에서 우리 대학이 학문적 연구를 선도하고 미래담론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장은 "궁극적으로 경계없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국민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인사

◆서울신문 ◇이사 △콘텐츠본부장(편집인 겸임) 김태균 △노설실장 황수정 ◇국장 △편집국장 김상연 △뉴미디어 국장 박상숙

부음

- ▲강종순씨 별세, 강영구(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씨 빙모상 = 15일, 상주시 민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17일. 0507-1397-8802
▲정양순씨 별세, 김영신(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전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씨 빙모상 = 15일 오전, 광주 그린장례식장 예궁실 2층, 발인 17일, 062-250-4455
▲최두식씨 별세, 김정호(충북일보 편집국장)씨 장인상 = 14일 오후 11시, 청주 하나장례식장 2층 특B호실, 발인 16일 오전 11시30분. 043-270-8400
▲유덕순씨 별세, 최윤화·최은마·최정식(송신대 일반대학원장)·최방식(전 시민의신문 편집국장)·최경순씨 모친상 = 15일 오전 2시23분,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7일. 02-6986-4440

한화그룹

“점자달력 신청하세요”

한화그룹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2025년 점자달력'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

한화는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해 2025년 점자달력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달력에는 장애인 재능 재능을 돕는 사회적기업 '오티스타'와의 특별한 협업을 통한 12개의 작품이 매일 소개된다.

달력 신청은 한화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양성운 기자 ysw@

LG디스플레이

노트북 패널 PCR 인증

LG디스플레이의 고성능 노트북용 디스플레이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자사의 14인치 고성능 노트북용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이 글로벌 검사-인증 기관 TUV 라인란드(TUV Rheinland)로부터 '탄소 배출 저감 인증'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TUV 라인란드의 PCR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회사는 노트북용 패널 생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기준 대비 약 8%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남영 기자



삼성전자가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을 통해 오르세 미술관의 작품을 선보인다. /삼성전자

삼성 아트스토어

수련 등 27점 명작 선배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과 파트너십을 맺고 '삼성 아트스토어'를 통해 근현대 미술 컬렉션 27점의 명작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MoMA 컬렉션에는 ▲피에트 몬드리안 '트라팔가 광장' ▲하나회회 '무제(다다)' ▲조지아 오키프 '저녁 별 III' ▲클로드 모네 '수련' 등 엄선된 근현대 미술 작품들이 있다.

삼성 아트스토어는 '더 프레임'의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로, 오르세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과 갤러리뿐 아니라 살바도르 달리와 장 미셸 바스키아 등 미술 거장의 작품 약 2500점을 4K 화질로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아이들형 - 신성록

10/18(금) 오전 11시, 2차 티켓오픈!

MUSICAL

SWING DAYS

암호명 A

2024.11.19 ~ 2025.02.09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뭣 “역점사업 줄속?... 자신있어” “명태균 논란, 허무맹랑”

(오세훈 서울시장)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

한강버스, ‘전시성’ 프로젝트 비판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 지적도 뭣, 명태균 질문에 “고소장 써놔”



오세훈 서울시장의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장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5일 서울시장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장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한강 리버버스,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 줄속 추진 논란이 불거진 시 역점 사업의 문제점과 선거브로커인 명태균씨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줄속 결정 과정 ▲교통수단으로서의 무용성 ▲사업 추진 주체의 문제를 근거로 한강버스 사업이 전시성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리버버스라는 게 수백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인데도 구상에 서부터 추진까지 불과 2달밖에 안 걸렸

다”면서 “(오 시장이) 유럽 출장에서 지시했는데 곧바로 두 달 만에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되고 용역 발주도 두 달 만에 구성됐다”며 준비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저는 줄속이 아니라 신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한강 수상버스가 당초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개선을 위해 대안 교통수단으로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애초 제안했던 내용이 전부 사라지고 서울마곡~잠실로 노선이 축소된 점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이 “김포 국회의원이 반대했다”고 해명하자 윤 의원은 “그걸 김포 국회의원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야당은 한강 수상버스는 접근성이 부족해 대중교통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리버버스는 7개 선착장이 있는데 대중교통부터 선착장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0~20분이다. 대중교통으로서의 접근성이 완전히 떨어진다”고 일침을 냈다.

또 “SH공사가 사업 추진을 한다는 자체에 많은 시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만약에 한다면 서울교통공사가 해야 될 일을 SH공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부분

이 석연치 않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내년 3월부터 충분한 준비를 거쳐 안전하게 이 사업이 시작되면 아마 이르면 2025년 여름, 그리고 내년에도 다시들이 자리에 오실 텐데 그때 쯤이면 리버버스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행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과 관련해 야당은 ▲긴 이동시간 ▲유택 미비 ▲부실한 임금체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건 문자 그대로 시범 사업이다”며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본 사업을 하지 왜 시범 사업을 하겠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정치권에 풍파를 일으킨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 오 시장과

의 관계도 도마에 올랐다. 윤건영 의원은 “명태균씨로 난리가 아니다. 어제도 메시지를 냈다. 시장님께 ‘자신있냐, 그만해라.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그만둬라.’라고 듣기 민망한 얘기를 했다”면서 “심지어 시장님께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울었다’라고까지 인터뷰를 했다. 그런 사실이 있냐”고 따졌다.

오 시장은 “국가 위임 사무도 아니고, 국가 보조금이 들어간 사안도 아니어서 답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답변을 원하니 드린다면...”이라고 입을 뗐다.

윤 의원이 재빨리 말을 가로채 “명태균씨는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판을 찼다고 주장한다. 동의 안하냐”고 묻자, 오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다”고 선을 그었다.

‘명태균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오 시장은 “고소장은 써놔다”고 답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수능 당일, 출근 늦추고 지하철 증편한다

(11월 14일)

교육부, ‘2025수능 지원대책’ 보고 주요 기업체 등에 10시 출근 협조 요청 군사훈련 중단·항공기 이착륙 조정

내달 14일 시행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주요 기업체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진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도 늘어나고, 듣기평가 때는 항공기 이착륙도 중단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안정적인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 8시 40분부터 17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1만8082명 증

가한 52만2670명이다. 정부는 52만여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해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해선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따라서 수능 당일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포 사격과 전자 이동 등 군사훈련도 잠시 멈춰진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인 오후 1시10분부터 35가지 25분간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 및 전자 이동 등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한다. 듣기평가 시간대 이외에도 수험생이 시험장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을 지나가는 버스·열차 등은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하며, 시험장 주변 행사장,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시도에서는 기상악화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대책, 제설 대책 등을 마련한다. /이현진 기자 ihj@

교원 93% “졸업앨범 사진, 딥페이크 우려”

교총 ‘딥페이크 실태 설문조사’

학교 현장의 딥페이크, 사진 도용·합성 피해가 잇따르면서 교원 10명 중 9명은 졸업앨범에 사진 넣기를 우려하고, 10명 중 8명은 학생들과 사진 찍기조차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정보 보호와 딥페이크 범죄 등의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희)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3537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여파 졸업앨범 제작 실태 파악 교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의 93.1%는 졸업앨범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사진 합성, 초상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졸업앨범에 사진을 넣는

교원이 느끼는 추세를 보였다. 교사 72.5%는 ‘점점 줄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전과 변화 없다’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전체 20.4%는 ‘딥페이크’조차도 얼굴 사진(프로필 형태 등)을 ‘모두 넣지 않는다’고 답했고, 17.7%가 ‘희망자 등 일부만 넣는다’고 답했다.

학급 단체사진에서도 담임 교사 사진은 사라지는 추세다. 단체사진에도 담임 교사 사진을 ‘모두 넣지 않는다’는 응답이 14.9%를 차지했으며, ‘희망자 등 일부만 넣는다’는 응답은 17.8%로 나타났다.

졸업앨범에서 사진 넣기를 꺼리는 것은 비단 교원뿐만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넣기를 꺼리거나 빼기를 원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응답이 45.5%에 달했다. /이현진 기자 ihj@

경기도, 체육 활성화 위한 진흥정책 추진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구현 박사

경기도가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한 체육진흥정책을 추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체육인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갖춘 체육회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체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회

관 등 체육시설 운영권을 체육단체에 맡기고 경기도종합체육대학의 대외장도 경기도지사에서 경기도체육회장으로 변경했다.

또한 도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관람 기회확대를 위한 기회경기관람권 도입했으며 전국 최초로 체육인기회소속 시행, 전국체전 유치 등 의미있는 체육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기회경기관람권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

상으로 도에서 열리는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료를 기존 75% 지원에서 본인 부담 1천원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체육인기회소속은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공통 기준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 소득 120% 이하(월 267만 4천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다. 선정된 체육인들은 연내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게 되고 내년부터는 연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나눠 지급한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10월 16일 (수)
 음력 : 9월 14일

수도권 날씨
 13 ~ 2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도: 인천 10/23, 동두천 11/24, 가평 11/24, 파주 9/22, 서울 13/24, 양평 13/24, 인천 13/22, 수원 14/23, 용인 14/23, 평택 14/2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이스라엘, 가자 병원·레바논 민가 맹폭 사상자 속출 /사진 뉴시스
▲ 해리스-트럼프, 다시 펜실베이니아 유세... 700만표 걸린 경합주 공략

▲ 11월 스몰캡 가나...美연준 고위 인사들 “금리인하 속도 조절 필요”
▲ 푸틴, 북·러 조약 비준안 러 하원에 제출



▲ 미국방부, 中 ‘대만 포위 훈련’에 “무책임·불안정 초래” 비판 /사진 뉴시스
▲ 中, 곧 예금금리 0.2~0.25%P 인하... “5경7400조원 대상”



아동복지 힘쓰고 지구온난화 경각심 기업들 ESG 앞장
니



Life

제약기업 자회사 성장동력 마련해 IPO 도전
L2



맨땅서 시작해 '매출 500억'... 유럽서 프랜차이즈 신화 쓰다

속깊은 인터뷰

전미자 아카키코 회장

1979년,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민을 가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팔던 작은 여인은 현재 점포만 22개, 연 매출 500억원을 벌어들이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가 됐다. 오스트리아에서 아시아의 맛으로 현지인들을 사로잡은 전미자 아카키코 회장(CEO) 이야기다.

- '아카키코'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1994년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에는 상호명이 '오스시'였다. 그 때는 메뉴가 스시와 마끼박에 없었다. 작은 쇼핑물 내 푸드코트에 입점한 거라 회전율이 높은 음식이 스시라고 판단해 메뉴 선정을 했다. 2년동안 운영하면서 좀 더 일본스러운 브랜드명으로 바꿨는데 그게 '아카키코'다. 별 뜻은 없고, 단지 받침이 없으며 일본 느낌이 나서 정한 상호명이다. 그러면서 메뉴도 늘렸고, 현재는 한·중·일식은 물론, 베트남 요리까지 100가지가 넘는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 음식으로는 인기있는 메뉴가 불고기 덮밥과 비빔밥이 있다.”

- 오스트리아로 이민가게 된 배경과 초기 정착 과정이 궁금하다.

“이민할 당시 결혼할 사람이 비엔나에서 공부중이었다. 그때만해도 외국인이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은 간호사였기 때문에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비행기에 몸을 싣었다. 처음에는 양로원에 취직했고, 거기서 1년동안 일하면서 독일어를 피눈물나게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첫 애를 임신하게 됐고, 육아휴직 동안 복직을 해야하나, 다른 길을 찾아볼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다 '나쉬마르크트'라는 재래시장에서 자리 한 칸을 인수하고 야채를 팔기 시작했다. 재료보는 눈이 그때 생긴 것 같다. 야채 가게를 운영하면서 직접 재료를 사입하고 팔다보니 보관법과 재료 숙성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됐다.”

- 요식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둘째를 낳고 몸이 너무 힘들었다. 새벽 3, 4시에 큰 차를 몰고 물건을 떼와서 저녁까지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보니 몸이 성치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젊고 열정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서울식당'이라는 식당을 인수했고, 야채 가게와 같이 하기에는 버거워서 식당에 올 인하게 됐다. 그때가 1985년이였다. 고추장과 간장 등 소스는 한국에서 공수해서 사용했고, 외국 고기 질이 워낙 좋아서 불고기를 판매했다. '아카키코'의 모태였던 '오스시'는 9년 뒤인 1994년에 시작했다. 노르웨이



전미자 아카키코 회장이 메트로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1979년, 20대에 오스트리아로 이민
1994년, 아카키코 모태 '오스시' 열어
'연 매출 500억' 프랜차이즈 대표로

시장서 야채 팔며 재료 보는 눈 생겨
신선한 언어 바탕으로 일식 시작해
날생선 낚선 고객 위한 신메뉴 개발

직원 대부분 이민자... 복지에 신경 써
오스트리아서 여성경제인 10인 선정
한글학교 등 한국인 위한 문화사업도

이에서 오는 연어가 너무 싱싱했고, 그 연어 때문에 일식에 뛰어들게 됐다.”

- 외국인들은 해산물에 대한 호불호가 있지 않나. 왜 스시였나.

“그때만해도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해산물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었다. 스시와 같은 날생선은 먹지 않았었다. 그래서 연어나 참치 등을 아주 얇게 썰어서 양념한 밥에 올렸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볼 법한 두툽한 초밥이나 스시를 생각하면 안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부감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다. 지금은 연어를 1년에 150t 이상 쓴다. 쌀도 100t 넘게 사용하는 것 같다. 품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다보니 음식이 맛있을 수밖에 없고, 손님도 많이 유입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 꾸준히 사업을 확장하다보면 음식 판매 외에 직원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었을텐데.

“우리 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이민자다. 나처럼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가는 것 같고,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한 배를 탄 것과 마찬가지다. 2008년 오스트리아가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20~30%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보자'고. 그때 함께했던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아카키코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신선한 재료와 직원을 위한 복지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 나의 철칙이다.”

- '아카키코' 외에 '요리', '김치' '우리끼리' 등 체인 브랜드도 늘리고 있다. 현지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싶다. 그리고 2~3개월의 주기를 두고 내부 회의를 거쳐 신메뉴를 선보인다. 빈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도시이기에 다양한 방문객의 입맛을 만족시키려면 기존 메뉴에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오스트리아 경제지가 선정한 여성경제인 이면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졌는데 소감은.

“2014년 오스트리아 경제지가 선정한 여성경제인 10인에 들었다. 외국사람으로는 유일했다. 사업을 크게 해서 선정된 건 아니고, 이민자들의 직업 창출과 복지 등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 또 오스트리아에 정착한 한국인들을 위해서도 문화 사업을 전개하고 후원하고 있다. 현지에 한인문화회관이 있는데 거기 관장으로 있고, 한글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한인문화회관은 한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합창단도 있고, 태권도, 사물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150명의 한인들이 그곳을 이용한다. 돌아보면 참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고, 현지인들이 인정해줬다는 게 뿌듯하고 감사하다.”

- 젊은 요식업 예비 창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조언이 있다면.

“한국 사람들은 빨리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그래서 한국사회가 발전이 빠른 걸 수도 있지만, 빠른 성공만 추구하다보면 작은 위기에 도 크게 낙담하고 실망하게 된다. 지금의 전미자가 있기까지 30년 넘는 세월이 걸렸다. 요식업을 떠나 모든 분야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전진해 나아간다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믿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오스트리아 '아카키코' 매장들. /아카키코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곳은 날씨에도 열기는 계속...LG-삼성 PO 2차전도 매진
▲한화서 현역 마친 김강민, 내년 SSG 유니폼 입고 은퇴식 /사진 뉴시스

▲MLB 메츠, 다저스 잡고 NLCS 1승 1패...양키스는 클리블랜드 제압
▲자신감 생긴 홍명보호 오늘 이라크전...북중미월드컵 최대 고비



▲'스페인 신성' 라민 야말, 근육 부상으로 국가대표팀 제외
▲'국제대회 출격' 배드민턴 안세영, '여제의 귀환' 알릴까 /사진 뉴시스